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뉴스타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bostonkoreanrealestate.com
Diana 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패트리어츠 눈 덮인 보스톤 퍼레이드, 인파 행렬

폭설, 혹한, 불편한 교통 및 주차 상황에도 인파 북적 파크스트리트부터 시청 광장 까지 몰린 인파로 마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일주일 동안 내린 두 차례의 폭설로 곳곳에 눈이 산더미처럼 쌓인 보스톤 시내에 패트리어츠 슈퍼볼 우승 퍼레이드가 열렸다.

지난 4일 열린 퍼레이드는 기상악화로 일정이 하루 연기되었고 당일은 교통마비로 인해 선수들이 1시간이나 늦게 도착했다. 팬들 또한 불편한 대중교통과 열악한 주차 상황 등으로 장소까지 도착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흥겨운 축제 분위기로 하나된 듯 했다.

퍼레이드에 참석한 권 씨는 "스케일이 '대박' 이다" 라며 페이스북에 직접 찍은 사진과 영상을 올리며 패트리어츠에 대한 팬심을 보였다.



MVP로 선정된 쿼터백 탐 브래디가 아들과 함께 퍼레이드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유대인 기자)

현장에 도착한 또 다른 한인은 "30분을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아 결국 지하철을 타고 왔다. 지하철도 평소보다 15분 정도 오래 걸렸다" 며 불편함으로 토로했다. 탐 브래디 저지 입을 수십명의 팬들과 함께 좁은 지하

철을 타고 왔다는 그는 "그래도 오길 잘했다. 아주 신나는 퍼레이드였다" 고 전했다. 팬들은 추운 날씨에도 지친 기색 없이 풋볼 영웅들을 기다렸고 마침내 패트리어츠는 25대의 덕보트(Duck

Boat)를 타고 휘날리는 빨간색과 파란색, 흰색의 콘패티(색종이 조각) 사 이로 모습을 드러냈다. 선수단과 팀 관계자들이 가족과 함께 덕보트를 타고 등장할 때 팬들은 ▶▶2면으로 계속

주말 다음주 초 또 폭설, 보스톤 겨울왕국 되나

일요일 밤부터 화요일까지 폭설 예상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최근 1주 동안 예년의 1년치 상당의 폭설이 내렸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 기상청은 더 많은 눈이 매사추세츠를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겨울 왕국의 '아렌델' 을 현실화 해야 이번 겨울은 만족할 지도 모른다.

5일 목요일 보스톤을 비롯한 동북부에는 비교적 적은 2인치의 눈이 내려 한숨을 놓았지만 곧바로 금요일 새벽 화씨 -2도까지 내려가는 한파가 들이 닥칠 예정이다. 특히 금요일 아침에는 바람마저 시간당 30마일로 강하게 불어 외부에서 약 30분만 노출되어 ▶▶3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1불의 행복! 대박이벤트!!

지금, IACE 를 통하여 미주지역에서 한국으로 가시는 왕복항공권을 구매하시면, 체류기간 동안,

인천 ⇄ 도쿄 나리타 항공권
+ 동경 2박3일 호텔숙박권

이 믿을수없는 가격,
\$1에 모십니다!

IACE TRAVEL Korean Line
CONNECT TO THE WORLD
24H ONLINE BOOKING
WWW.IACE-KOREA.COM
1-866-619-4223
info@iace-korea.com
3655 Torrance Blvd, Suite 100, Torrance, CA 90503

NEWSTAR Realty of Boston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뉴스타 부동산의 나원태, 제이슨 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Lexington, Newton, Allston, Brighton, Cambridge, Boston

MA, RI 전 지역의 리스팅 구축,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정보, 철저한 분석으로 최적의 결과 창출, 완벽한 팀워크를 통한 차별화된 부동산 마케팅 제공

나원태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3156
wonra@newstarrealty.com

2013년, 2014년 연속 2년
뉴스타 부동산 미주전체 1위
풍부한 경험과 실적이 증명합니다

제이슨 전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5670
jason.jeon@newstarrealty.com

MORTGAGE MASTER

Ezer Lee
NMLS #85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Kakao Talk ID: ezerlee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0859995

Languages: English + Korean
44 Trapelo Road, Belmont, MA 02478
loanDepot.com, LLC d/b/a Mortgage Master, 102 Elm Street, Walpole, MA 02081, Telephone 508-850-4100, Fax 508-850-4200. All rights reserved. NMLS ID #174457 (www.nmlsconsumeraccess.org) Massachusetts Mortgage Lender/Broker License MC174457

10년만의 우승 보스톤은 축제의 도가니

▶▶1면에 이어서

아낌없는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프루텐셜에서 시작된 퍼레이드를 따라 점차 많은 팬들이 시청 광장 쪽으로 몰려들었고 결국 파크 스트리트부터 시청 광장까지의 일대는 밀려든 인파로 마비가 되었다.

MVP로 선정된 쿼터백 탐 브래디는 어린 아들과 함께 나타났다. 특히 아들이 우승컵에 키스를 하는 모습은 팬들의 눈길을 끌며 함성을 자아냈다.

이어 줄리안 애들먼, 세인 베린, 스테반 리들리, 말콤 버틀러, 찬들러 존스, 빈스 윌포크, 랍 그롱코스키 등의 선수들이 흥겨운 음악과 함께 등장해 팬들과 인사를 나누며 축제를 즐겼다. 줄리안 애들먼, 세인 베린 등의 선수들은 덕보트 위에 올라가 음악에 맞춘 춤을 추는 등 우승의 기쁨을 온 몸으로 표현하며 축제를 만끽했다.

건물 안에서도 수많은 팬들이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창가로 모여 들었고 '유 디드 유어 잡(You Did Your Job)' 이라고 적힌 플래



카드를 내걸기도 했다. 소방차 위에 올라간 소방수들과 인근 공사장의 인부들도 모두 하나가 되는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한편, 이날 퍼레이드에는 패트리어츠 치어리더와 밴드가 덕보트에서 등장해 분위기를 띄우고 결승전의 패트리어츠 민병대가 축포를 발사하며 퍼레이드의 시작을 알리기도 했다.

10년만에 우승컵은 거머쥔 패트리어츠는 지난 1일 시애틀 시호크스와 슈퍼볼에서 후반전 10점차를 극복하고 28-24로 역전승했다.
dyoo9146@bostonkorea.com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는 줄리안 애들먼 (사진=유대인 기자)



패트리어츠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팬들은 창 밖으로 몰려들었다 (사진=유대인 기자)



퍼레이드에 앞서 축포를 발사하는 결승지점의 민병대 (사진=유대인 기자)



덕보트를 탄 선수들을 환호하는 패트리어츠 팬들 (사진=유대인 기자)



콘페티가 휘날리는 패트리어츠 우승 퍼레이드 (사진=유대인 기자)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톡스 & 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펴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 매직 스트레이튼 Magic Straightening
-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 Threading Threading
- 디지털 펴 & 셋팅 펴 Digital Perm & Setting Perm
- 아이롱 펴 Iron Perm
- 헤어 칼라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 왁싱 Waxing
- 얼굴 마사지 Facials
-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종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주변 제설작업, 누구의 책임인가

거주지는 본인, 비즈니스는 건물주에게 책임 있어
보스톤 시 눈폭풍 후 거주지는 6시간, 비즈니스는 3시간 내 제설해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연이어 불어닥친 눈폭풍으로 보스톤 주민들은 혹독한 겨울 신고식을 치르는 중이다. 한바탕 쌓인 눈으로 다닐 수 있는 거리는 좁아지고 점점 더 미끄러워지지만 눈을 치우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하다.

지난 2010년, 매사추세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즈니스 상가 앞의 눈과 얼음을 치워야 하는 책임이 건물 소유주에게 돌아갔다. 거주지의 경우 거주자가 직접 앞의 눈을 치워야 하지만 아파트 거주자에게는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현 세입자가 눈을 치워야 한다는 계약서에 동의했다면 세입자가 눈을 치우는 것이 맞지만 어떠한 사고에 따른 결과적인 법적 책임은 건물주

에게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사고를 당한 제 3자는 현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를 고소할 수 있으므로 눈이 쌓이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고 재빨리 치우는 것이 중요하다.

건물주가 타 지역에 가 있는 상황에도 반드시 누군가에게 부탁하거나 고용해서 제설 작업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사례로 지난달 29일 비컨힐에 거주하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사우디 아라비아 국왕의 장례식에 참석하며 눈폭풍 후 미처 집 앞의 눈을 치우지 못해 \$50의 벌금을 냈다. 그의 개인 대변인은 보스톤글로브와의 인터뷰를 통해 "(장관은) 기꺼이 벌금을 낼 것" 이라고 밝혔다. 미 권력 서열 4위인 국무장관도 제설 작업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한 셈이다.

한편, 눈폭풍이 온 후 눈을 치워야 하는 기한이 도시별로 정해져 있다. 보스톤 시 규정에 의하면 주거지는 눈폭풍 후 6시간, 비즈니스 상가는 3시간 이내에 눈을 치워야 한다. 워체스터 같은 경우 12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서머빌 거주자 혹은 건물주는 낮 동안 눈이 그치면 당일 밤 10시까지 눈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건물 소유주가 건물 주변 제설작업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을 치워야 하고 밤 중에 눈이 그치면 그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눈을 치워야 한다. 이외에도 눈을 치워야 하는 기한은 지역 별로 다르니 각 기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눈을 치울 때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제설 시 눈을 도로에 치우거나 도보와 도로가 매끄럽게 연결되는 커브 커트(Curb Cut)를 막게 치워서는 안 된다. 공공 기관 구역으로 눈을 치

우는 것도 불법이며 적발 시 벌금을 내게 된다. 이웃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눈을 치우는 것도 하나의 에티켓이다.

제설제인 아이스 멜트(Ice Melt)는 로우스(Lowe's)나 홈디포(Home Depot) 등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로우스에서는 아이스 멜트 40파운드가 \$9.47, 록 솔트(Rock Salt)가 50 파운드에 \$7.77에 판매되고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계속되는 눈 화씨 0도 한파 겨울앞이 심각

▶▶ 1면에 이어서

도 동상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6일 토요일에도 많지는 않지만 간간히 눈이 내려 약 1인치 가량이 쌓이겠으며 일요일에는 3-5인치의 눈이 내릴 예정이다.

기상 예보관들은 이번주 일요일인 8일 밤부터 화요일까지 예상되는 눈에 주목하고 있다. 정확한 양은 아직 예측하지 않았지만 또 한번 차를 눈에서 파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hsb@bostonkorea.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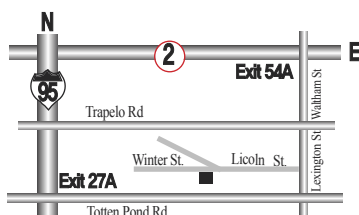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SAT Plus Fall Schedule

Starting September 6, 2014

Class	Time
PSAT / SAT I Prep (Grade 11)	9:00 AM – 11:00 AM Saturday
PSAT / SAT I Prep (Grade 10)	11:30 AM – 1:00 PM Saturday
READING / MATH (Grade 9)	1:30 PM – 3:00 PM Saturday
SAT I Prep (Grade 12)	4:00 PM – 6:00 PM Saturday
Individual Tutoring	3:00 PM – 10:00 PM Sunday – Thurs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월시, 첫 소수언론 기자회견, 이민사회에 대한 관심 드러내

이일랜드 이민 2세로서 이민사회 공감해
제설작업 알리미 <보스톤 스노우 스탯츠> 개설 등 폭설 비상사태 관련 소식 신속 전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마틴 월시 보스톤 시 시장이 지난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소수민족 언론들을 직접 만났다. 이민 사회에 대한 관심을 행동으로 직접 보여준 것이다.

친이민 성향을 띄던 전 토마스 메니노 시장도 소수민족 언론을 불러 따로 기자회견을 가진 적이 단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은 신선한 행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시청 홀에서 소수민족 기자회견을 가진 월시 시장은 곧 시행될 예정인 오바마 이민개혁과 이에 관해 시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워크샵을 설명하고 그 외 주요 시정에 대해 이민사회 언론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일랜드 이민 2세로서 보스톤 지역 이민사회와 크게 공감하고 있다는 월시 시장은 “보스톤이 특별한 이유는 민족적 다양성 때문이다. 여러 이

민 사회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스톤의 경제와 사회문화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날 월시 시장이 가장 강조한 핵심적인 주제는 오바마 이민개혁 신청을 돕기 위한 청소년 추방유예(DACA) 무료 워크샵이었다. 뉴보스톤시안인 2월 26일 목요일을 다카 데이(DACA Day)로 지정하고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을 계획하는 이민자들을 돕기 위한 무료 워크샵을 개최한다.

또 다른 중요한 안건으로는 연이어 보스톤을 강타한 눈폭풍이 제기됐다. 월시 시장은 “폭설 비상사태(Snow Emergency)나 대중교통 운행에 대한 긴급한 소식 등을 최대한 빨리 전달하기 위해 노력 중” 이라고 그는 전했다.

이러 월시 시장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뉴보스톤시안의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 여러 가지 언어로 공지사항이 발표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 언론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며 “많은 소수민족 언론사들의 협조를 부탁한다” 고 말했다.

한편, 월시 시장은 지난 2일 보스톤 시 제설작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온라인 플랫폼 ‘보스톤 스노우 스탯

츠(Boston Snow Stats)’ 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웹사이트에 따르면 보스톤은 올겨울 시즌 동안 총 53.4인치의 눈이 내렸으며 공공부서(Public Works Department)는 86,799시간을 들여 157,417 마일의 제설 작업을 진행했다. 자세한 정보는 보스톤 스노우 스탯츠 웹사이트(snowstats.boston.gov)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보스톤코리아

를 포함한 중국, 베트남, 인도, 아일랜드, 아이티 등의 17개국 소수민족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마틴 월시 보스톤 시 시장은 50% 이상의 지지율로 지난해 1월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이민사회를 포함한 여러 가지 시정을 활발하게 챙긴 지난해 75%에 달하는 지지율이 나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제기된다.

dyoo9146@bostonkorea.com



마틴 월시 시장이 지난 4일 소수민족 언론과의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유다인 기자)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영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다인 Dain Yoo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악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휴일제 | 연합뉴스 1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 A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오바마 이민개혁 무료 워크샵, 보스톤도 최선 다할 것

청소년 추방유예 2월말, 부모책임 추방유예에는 5월말 신청 시작
2월 26일 청소년 추방유예 워크샵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이 지난 4일 시청 홀에서 열린 뉴보스톤니안(New Bostonian) 소수민족 언론 기자회견을 통해 오바마 이민개혁에 관한 이민자들의 추방유예 접수 신청을 돕는 무료 워크샵을 소개했다.

뉴보스톤니안이 제공하는 무료 워크샵은 청소년 추방유예(DACA) 신청을 준비하는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제공되며 다카 데이(DACA Day)로 지정된 2월 26일 목요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워크샵 자체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465의 신청료는 당사자가 직접 지불해야 한다.

청소년 추방유예 대상자는 2010년 1월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한 사람으로 미국에 입국할 당시 나이는 16살 미만이어야 한다. 현재 학교에 등록되어 있거나, 고등학교 졸업자, GED증명서 보유자, 미국 해양경비대나 미군 복무 후 명예제대한 사람에 한해 적용된다.

전과가 없으며 신청 당일 만 15세 이상이어야 한다.

월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시민권을 얻으려는 이민자들의 수는 보스톤에만 6만 8천여명에 달한다. 이들을 보스톤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야 하며 이들의 신분 문제를 위해 보스톤 시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방유예 프로그램 신청에 관한 정확한 날짜나 구체적인 신청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방유예 신청을 앞둔 이민자들은 사기행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월시 시장과 함께 참석한 알레잔드라 길렌 뉴보스톤니안 디렉터는 “특히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는 이민자들은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준다거나 신분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사기행각에 속기 쉽다”며 “반드시 보스톤니안 워크샵이나 이민전문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청소년 추방유예 혹은 부모책임 추방유예 프로그램 신청자 자격 혹은 위



청소년 추방유예 무료 워크샵에 대해 설명하는 월시 시장 (사진=유대인 기자)

크샵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뉴보스톤니안 콜센터(617-635-4141)로 문의하면 된다. 콜센터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0일 발표한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과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프로그램은 3년 동안 이민국 추방에 대한 임시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민 신분 혹은 시민권 신청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약 40만명의 아시아 이민자들을 포함한 490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dyoo9146@bostonkorea.com

초,중학교 수업시간 40분 연장 실시

총 60개 공립학교 실시, 고등학교는 제외
오는 가을부터 20여개 학교 적용기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이 추진한 ‘수업시간 40분 연장’ 정책이 지난 1월 28일 실시된 보스톤 학교 위원회(Boston School Committee)의 최종 투표로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오는 가을 학기부터 20개의 공립 초 중학교에서 연장 수업이 실시되며 점차적으로 3년간 총 60여개 학교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보스톤 공립 학교(Boston Public Schools)는 우선적으로 연장 수업을 시행할 20개 학교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마틴 월시 시장은 “수업시간이 40분 연장되어 학생들은 학습의 진보를 이루고, 다양하고 가치 있는 기회들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스톤교사연합회와 보스톤공립학교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정책으로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가 높아지고 더 나아가 학교 시스템의 전반

적인 수준이 향상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밝혔다.

연장된 수업시간에는 수학과 영어의 보충수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미술과 음악, 과학 등의 다양한 액티비티가 제공된다. 무엇보다 교사들이 학습 면에서 부진한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수업시간 연장 정책의 예산은 약 \$1,250만 달러로 해당 교사들의 연봉은 \$4,464 오를 예정이다.

한편, 공립 고등학교는 이와 같은 수업시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등학교는 이미 수업시간이 충분히 길다는 것이 그 이유다. 보스톤 공립학교 서비스 디렉터인 데니스 스나이더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의 총 수업시간은 평균 6시간 30분 이상으로 가장 길고 중학교는 6시간 10분, 초등학교는 6시간이다.

보스톤 교사 연합(Boston Teachers Union)은 1월 초에 수업시간 연장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 안건은 최종적으로 지난 1월 28일 보스톤 학교 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승인되었다.

dyoo9146@bostonkorea.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발렌타인데이, 가장 로맨틱한 하루 보내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일년 중 가장 달콤한 날, 발렌타인 데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마음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과 짜임새 있는 데이트 코스로 더욱 기억에 남는 하루를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꽃이나 초콜릿 등을 준비한다면 미리 사는 것이 비교적 저렴하다. 발렌타인 데이 하루나 이틀 전에는 가격이 가장 높다는 것을 기억하고 미리 쇼핑을 시작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한편, 보스톤의 수많은 레스토랑이 발렌타인 데이를 맞아 특별 할인이나 메뉴를 제공한다. 그녀 혹은 그가 가장 좋아할만한 분위기와 메뉴를 알아보고 레스토랑을 엄선하자. 사전에 예약도 해서 로맨틱한 식사를 곁들인 데이트를 즐겨보는 것을 추천한다.

▶ 꽃 배달로 깜짝선물 준비하기
꽃은 미리 사면 시들기 때문에 보통 당일이나

하루 전날 사게 된다. 하지만 이는 가장 비쌀 때 사는 것으로 막상 꽃 한다발이 놀랄 정도로 가격이 비싼 경우도 있다. 합리적인 가격과 로맨틱한 서프라이즈를 동시에 잡고 싶은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꽃 배달을 추천한다.

일주일 전에 인터넷으로 배달을 예약하면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 원하는 꽃의 종류와 색상, 데코레이션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 집 앞까지 배달되는 꽃 선물은 말 그대로 깜짝선물이 되겠다.

대표적인 꽃 딜리버리 웹사이트로 프롬유플라워스(Fromyouflowers.com)와 1800플라워스(1800flowers.com)를 소개한다. 곰인형이나 초콜릿 등을 함께 배달하기도 하며 가격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장미 한 다발이 \$29.99부터 시작한다.

▶ 초콜릿? 케이크?

발렌타인 데이에 초콜릿이 빠질 수 없다. 직접 만든 수제 초콜릿이 연인 사이에서는 인기가 많지만 차라리 맛이 보장된 브랜드 초콜릿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기있는 초콜릿 브랜드는 고다이바(Godiva), 기라델리(Ghirardelli), 린트(Lindt) 등이 있으며 모두 보스톤 시내에 상점이 있다. 고다이바는 프루덴셜 센터 안에, 기라델리는 퀸시마켓에, 린트는 코플리 역 근처에 있다. 이외에도 L.A.버디(Burdick)이라는 수제 초콜릿 가게가 유명하다. 캠프리지와 백베이에 각각 1호점과 2호점이 있다.

한편,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는 케이크를 추천한다.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케이크를 준비하면 아이들을 포함한 온 가족이 함께 나눠먹을 수 있어 더욱 좋다. 한국인 입맛에 꼭 맞는 한국 케이크는 H마트 내에 위치한 한인 베이커리에서 케이크를 살 수 있다. 치즈케이크 팩토리(Cheesecake Factory)의 부드러운 치즈케이크도 발렌타인 데이에 잘 팔리는 선물 중 하나다. 가격은 \$40선이다.



▶ 맛과 낭만이 어우러진 식사

분위도 있고 맛도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발렌타인 데이를 맞아 보스톤의 많은 레스토랑이 연인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이 날만을 위한 특별 메뉴를 선보이기도 하며, 특별 할인가가 적용되기도 한다. 특별 이벤트는 보통 13일 금요일부터 15일 일요일까지 계속되므로 반드시 보스톤 셰프스 웹사이트(bostonchefs.com)를 참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아라고스타 바&비스트로
3 Battery Wharf, Boston, MA 02109
617-994-9001

aragostabistro.com
바다를 내다볼 수 있는 창가에서 발렌타인 메뉴를 즐길 수 있다. 프로슈토 칸넬로니 파스타, 바삭한 오리 가슴살 요리, 라즈베리 판나코타 등의 메뉴가 제공된다. 4코스 메뉴는 1인당 \$65이며, 6코스는 \$85이다.

백 베이 해리스
142 Berkeley Street, Boston, MA 02116
617-424-6711
backbayharrys.com

백 베이 해리스의 셰프 제이슨 산토스가 직접 고른 데이트 메뉴가 준비된다. 굴 바비큐 구이, 망고 치즈케익 등이 있다. 3코스 메뉴가 1인당 \$55이다.



블루드래곤
324 A Street, Boston, MA 02210
617-338-8585
ming.com/blue-dragon.htm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준비되는 발렌타인 데이 코스는 커플 두 명에서 \$150이다. 와인 페어링 시 1인당 \$25이 추가된다. 메뉴로는 스파이시 랍스터 롤, 크리스피 오리 가슴살 요리 등이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무료전화 1-888-666-170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Tel 617.739.2888
www.utsboston.net

Universe travel services
100 Hano Street #23A, Allston, MA 02134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고려대 교우회 신년행사로 뜻깊은 시간 가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고려대학교 교우회(회장 이태호, 생물 87) 신년 모임이 지난 1월 30일 금요일 찰스강과 보스턴 다운타운이 내려다 보이는 MIT의 이스트게이트 29층 펜트 하우스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모임에 참석한 50여명의 교우들과 가족들은 신년 인사를 나누고 새로 참석한 교우들을 환영하며 즐거운 시간을 나눴다.

이태호 교우회장은 개회사에서 눈이 내리는 좋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한 교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있을 행사를 소개

하며 많은 교우의 협조와 참석을 바라고 전했다.

고문을 맡은 한선우(원예 78) 교우는 막내로 처음 교우회에 참석했을 때를 회고하며 40년을 이어오는 고대 교우회의 역사를 후배들에게 간단히 설명했다.

대의 협력을 맡은 한문수(경제 83) 교우는 5월에 있을 고연전 골프대회를 소개하며 필승을 다짐했다. 이어 보스턴 한인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후원한 단체들을 소개하며 모임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한 이문항(사회 80) 교우와 임원진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서 교우들은 민속놀이인 율놀

이 시간을 가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본교에서 보내온 고대 신년 달력을 나눠 가졌다. 이날 모임은 전인탁(재료 공 03) 교우의 선창으로 교가와 교호 제창으로 마무리 되었다.

다음 모임은 오는 6월로 고대 교우회 고문인 이동익(건축 73) 교우 자택에서 모임을 갖고 친목을 다질 예정이다. 고대 교우회에 대한 문의는 이태호 회장

(617-780-2999, tlee0813@hotmail.com)이나 김재철 교우(617-455-7649, jaeck@mit.edu)에게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고려대 교우회가 지난 1월 30일 MIT 펜트하우스에서 신년 모임을 가졌다

위안부 클럽 나비 세미나 “내가 그 증거입니다”

뉴욕, 보스톤서 초청 강사로 세미나 적극 지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한인 학생들을 주축으로 활동하는 뉴튼 사우스 고등학교의 교내 클럽 ‘나비(Nabi)’가 3월 4일 수요일 ‘내가 그 증거입니다(I am the Evidence)’라는 주제로 위안부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교내클럽 ‘나비’를 이끌고 있는 김예나 학생(16)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어 놀랍고 감사하다”며 “(보스톤코리아) 기사가 나간 후 다양한 신문 및 방송사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고 보스톤과 뉴욕에서 강사로 자원한다는 분들의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 초청강사로서는 뉴욕 유엔(UN) 컨퍼런스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김영호 인권대사와 위안부 및 독도 관련 교육활동을 했던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 김성혁 회장이 참석한다.

김성혁 회장은 “뉴튼 한인 고등학교 학생들이 추진하는 위안부 알리미 활동은 우리가 격려하고 지원해야 하는 ‘역사의식 바로 세우기 운동’ 뿐 아니라 차세대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나비’의 활발한 활동과 추진력에 학교 학생들과 교사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교내에 세미나 포스터를 붙인 후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멈춰서서 읽는 등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김 양의 말이다.

1시간씩 총 4개의 섹션으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를 통해 ‘나비’는 교내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위안부에 대한 소개, 공식 명칭, 일본과의 역사적 갈등을 설명하며 각종 증언 영상 자료를 함

께 나눌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의 사진과 직접 만든 노란리본 배지를 나눠줄 예정이다. 세미나 이후에는 펀드레이징을 위한 베이크 세일과 일러스트 엽서를 판매할 예정이다.

dyoo9146@bostonkorea.com



내가 그 증거입니다 세미나 포스터

보스톤산악회 정기산행 공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산악회(회장 현정원)가 오는 2월 14일 토요일 뉴햄프셔 소재 마운트 피어스(Mt. Pierce)로 정기산행을 간다.

산행의 난이도는 5단계 척도법으로 3.5이며 산행 소요시간은 6시간이다. 왕복 6마일인 크로우포드 패스(Crawford Path) 트레일을 따라 가며 산행거리가 길지 않은 관계로 A, B, C조 모두 정상을 목표로 산행할 예정이다.

준비물은 배낭, 등산화, 마이크로 스파이크나 크랩폰, 방한복, 방풍의, 장갑, 모자, 헤드램프, 트랙킹 폴, 식수 및 간편 음식이다.

산행 당일 집결은 울스톤 공영 주차장에서 오전 6시 30분,

Park&Ride Exit 2 of RT93에서 오전 7시 15분에 하면 된다. 한편, 이번 산행의 울스톤 집결지는 차량운행 봉사자가 있을 경우에만 운영하게 된다.

산행 신청은 산행 전 목요일인 12일 오후 6시에 마감하며 신청시 원하는 조(A, B, C)와 집결지, 차량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게 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연락해야 한다. 회비는 \$20이다.

운행차량에 비해 신청자가 많은 경우, 산행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차량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회원들의 차량운행 봉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민/형사 소송
이민법

전화: (781)712-1706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한인 작가 조미애 개인전 '판타지(환상)' 열려

희망적이고 행복한 음악 그리는 예술가 되고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음악을 그리는 한인 작가 조미애 씨의 개인전 '판타지(환상)'이 3월 4일부터 29일까지 보스톤 소재 갈라티아 갤러리에서 열린다.

“음악을 들으면 몸으로 감동을 강하게 받고 그것을 꼭 어딘가에 다시 표현하고 싶은 충동을 강렬히 받는다”는 조 씨는 음악과 미술의 두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그림을 통해 현실에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은 안겨주고 싶다는 조 씨는 밝고 신나는 음악만을 듣는다. 장르는 클래식부터 팝송, 랩까지 다양하지만 하나같이 경쾌하고 희망적인 음악뿐이다.

조 씨가 좋아하고 예술적 영감을 얻는 단어도 느낌이 비슷하다. '밝은 미래', '깨달음', '자유', '상상', '긍정', '행복'... 이번엔 열리는 개인전 '판타지(환상)'도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로 전시회에 걸리는 20여점의 추상화 작품 모두 색감이 밝고 천진난만하다.

어린 아들과 잠시 헤어져야 했던 시기를 겪었다는 조 씨는 “슬픈 이야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항상 밝고 희망찬 미래만 그리고 싶다”고 전했다. 어린 아들이 그린 동물들과 조 씨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그려낸 '비밀'이란 작품은 이번 전시회에서 조 씨가 가장 애정을 많이 쏟은 작품이다.

“이렇게 그림 속에 넣고 보니 슬픔이 승화되어 따뜻하게 품으로 돌아

왔다.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 손녀와 함께 그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전했다.

조미애 작가가 음악으로부터 영감을 얻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사실 그녀는 성악을 전공한 음악인으로서 특히 불교 초기 현대음악에 관심을 갖고 미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연주활동을 펼쳤다. 미주 순회 공연 중 개인사정으로

인해 보스톤에 정착한 조 씨는 합창단에서 음악인으로서의 삶을 8년간 지속해왔다. 그러다 문득 생각난 것이 어릴 적부터 하고 싶었던 미술활동이었다.

“성악가는 몸이 악기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웃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제약이 있다. 자유를 잃어버린 느낌이였다”는 조 씨는 “미술을 하면서 자유롭게 행복한 내 자신을 보게 되었다”고 전했다. 음악을 했기에 지금의 미술인이 될 수 있었다는 그녀는 두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굉장히 행복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현재 조 씨는 보스톤 갈라티아 파인아트 갤러리와 캠브리지 예술협회 멤버로 활동 중이다.

조 씨는 3월에 열리는 개인전과 더불어 보스톤 미술박물관대학 동기와 함께 그룹전을 개최한다. 여성 역사의 달을 맞아 '네 개의 관점'이라는 테마로 작품을 전시한다. 그룹전에 출품되는 작품은 주로 인물화로 개인전의 추상화와는 다른 분위기를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조미애 작가는 성신여자대학교에



음악에서 영감을 얻는 조미애 작가의 개인전 '판타지(환상)'이 3월에 열린다

서 학사와 석사과정으로 성악을 전공했으며 보스톤 시립박물관대학과 국립미술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 각지에서 활발한 전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조 씨의 전시 일정으로는 프랑스 니스와 영국 런던에서 작품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시회 일정

개인전 '판타지(환상)'

일시: 2015년 3월 4일~29일

장소: 갈라티아 갤러리 (Galatea Gallery) 460 Harrison Avenue, Boston, MA 02118

리셉션: 3월 6일 금요일 오후 6시~8시

그룹전 '여성 역사의 달(네 개의 관점)'

일시: 2015년 3월 1일~31일

장소: 스콜레이 스퀘어 갤러리 (Scollay Square Gallery) Boston City Hall, Boston MA 02201

리셉션: 3월 18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5시 30분

dyoo9146@bostonkorea.com

정우, 한효주 주연 '췌시봉' 20일 보스톤 개봉

보스톤 소재 리갈 펜웨이 스테디움 극장서 상영

는 췌시봉의 뮤즈 민자영 역을 맡아 김희애와 2인1역을 연기했다.

한편, '췌시봉' 예고편에는 당대 오빠부대를 이끈 조영남의 '달라일라'를 비롯해 이장희의 '그건 너', 송창식의 '담배가 게 아가씨'까지 영상과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추억의 명곡들이 보고 듣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윤형주, 송창식, 조영남, 이장희씨 등 6~70년대 포크 가수들을 소재로 한 영화 '췌시봉'이 오는 20일 금요일 리갈 펜웨이 스테디움(Regal Fenway Stadium)에서 개봉한다.

영화 '췌시봉'은 젊음의 거리 무교동을 주름잡던 음악감상실 '췌시봉'과 잊지 못할 첫사랑의 기억을 그린 작품이다. 주연은 정우, 한효주, 김윤석, 김희애 등의 화려한 라인업으로 구성되며 한효주

개봉일정

개봉일: 2015년 2월 20일 금요일

개봉장소: 리갈 펜웨이 스테디움(Regal Fenway Stadium) 201 Brookline Avenue, Boston, MA 02215

dyoo9146@bostonkorea.com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부동산 중개인 김현구
Chris H. Kim, GRI Realtor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주택 무료 감정

Cell 617.694.0985

Brookline Office: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
Newton Office: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Chris.Kim@NEMoves.com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눈 폭탄 맞은 보스톤의 겨울얇이 모습. 2월 4일 화요일 비컨 스트리트는 마치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폭설 후 대중교통 및 도로 극심한 정체

커뮤터 레일 1-2시간 지연
지하철도 25-50% 운행 불가능
일반도로도 극심한 정체 현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에 내린 폭설 후유증으로 보스톤 교통이 몸살을 겪고 있다. 보스톤의 대중교통인 MBTA의 제너럴 매니저는 지하철 및 커뮤터 레일 등의 대중교통이 2월 4일에도 정상 운행 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MBTA의 지하철과 커뮤터 레일은 지난주 블리자드에 이은 지난 월요일 폭설 그리고 화씨 0도에 달하는 강추위로 인해 장시간 지연되거나 운행이 취소돼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

베벌리 스카트 제너럴 매니저는 3일 모든 대중교통이 극심한 자연사태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도 눈 언덕으로 길이 좁아져 곳곳이 정체를 이뤘다. 일반적으로 10분 걸리는 거리가 4-50분대로 고무줄처럼 늘어나 업

무시간이나 회의 등에 지각하는 게 다반사였다.

4일 지하철 레드라인과 오렌지 라인인 약 40%에 달하는 차량의 운행이 줄었다. 그린라인은 비교적 나은 약 25% 달하는 차량의 운행만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계속적인 도착 시간 지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3일 아침 출근 시간 리치미어 역에서는 지하철의 정체가 극심해 켄모어 역까지 버스로 운송하기도 했다.

커뮤터 레일도 지연은 마찬가지다. 피치버그/사우스 액튼 열차는 100분이 지연됐으며 니덤 선 열차는 무려 120분이나 지연됐다. 뉴베리포트/락 포트 행 열차는 아예 운항 자체가 취소됐다.

2월 3일 그린부시 인바운드 열차가 퀸지센터에서 멈춰서는 바람에 다른 남쪽 방향에서 보스톤으로 향하는 열차들의 운행도 모두 중단시켰다가 오전 9시 30분께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이 열차 안에 있던 승객들은 전원이 꺼지고 난방까지 되지 않았다는 트윗을 날려 정체 당시의 힘든 상황을 알렸다.

문제는 이 같은 정체가 결코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베벌리 스카트 제너럴 매니저는 “모든 수단과 장비를 동원해 복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대중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 하면 앞으로도 극심한 정체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고 밝혔다.

지난 1월 취임한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발끈했다. 주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MBTA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밝히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베벌리 스카트와 스테파니 폴락 교통부 장관과 만나 논의할 것” 이라고 말했다.

스카트 씨는 “결코 준비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노후에 따른 문제다. 당장 회복시킬 수 있는 마법은 없다. 지금으로선 현재 상태의 운행이라도 유지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희망이다” 라고 답했다.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계속 눈이 예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빠른 시간 안에 나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대중교통 수장 대중교통 이용 자제 호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100여년이나 된 보스톤의 전철이 지난 3일 화요일 두번째 폭설과 한파로 인해 한 두시간씩 지연되는 등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전철을 관리하는 MBTA 제너럴 매니저는 솔직하게 대중교통의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례적인 장면까지 연출됐다.

커뮤터 레일을 비롯해, 레드라인, 오렌지 라인 그리고 그린라인까지 모두 정상적인 운행에 차질이 생긴데다 4일 슈퍼볼 우승 퍼레이드까지 열리면서 보스톤 시장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자 대중교통 수장이 이용 자제를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MBTA 측은 이 같은 자연사태가 폭설과 강추위라는 자연적 재해로 인해 드러나기는 했지만 연재가 불가할 문제였음을 강조했다. MBTA 전철 전 노선에 필요한 재투자가 예산 우선 순위에서 밀려 오랫동안 외면당한 탓이라는 것이다.

그린라인은 100년, 레드라인은 50년, 대부분의 오렌지 라인은 30여년이 될 정도로 노후한 노선이다. 그럼에도 적절한 보수 유지관

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베벌리 스카트 제너럴 매니저는 지적했다.

이 두 전철라인은 약 4년 전부터 차량의 일부를 교체하기 시작했지만 차량 교체로만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전기공급과 신호시스템의 교체만도 3억달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한 현실적으로는 이의 8%에 달하는 2천 5백만불의 예산만 배정되어 있다.

T 자체에 산적한 문제도 있다. 직원들의 연금체계를 중심으로 예산 사용에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 법에 따르면 T 근로자들은 25년 근무 후 55세에 은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빅디오로 인한 50억 달러 이상의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다. 1년 예산의 4분의 1이 대출 및 이자 상환에 사용될 정도다.

두번의 폭설은 이처럼 꼭 누르고 있던 MBTA의 불편한 얘기를 공론화 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불편을 겪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 서민들이다. 베벌리 스카트의 솔직함이 전혀 반갑지 않은 이유다.

hsb@bostonkorea.com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
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스태플스, 60억 달러에 오피스디포 인수

프레밍햄 소재 사무용품사
아마존, 타겟 등에 버금가는
규모 소매체인점으로 변신



스태플스가 오피스디포를 인수하면서 거대 사무용품 회사가 탄생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사무용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스타플스(Staples)가 동종 업계의 경쟁 회사인 오피스디포(Office Depot)를 6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지난 4일 발표하였다. 이번 인수합병 결과 월마트, 타겟, 아마존에 버금가는 거대 소매 체인이 탄생하게 되었다.

스태플스와 오피스디포는 주요 고객층이 상당 부분 겹친다. 두 회사는 같은 소비자를 두고 경쟁을 계속하기보다는 인수합병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 것이다.

스태플스는 오피스디포 인수로 인해 4천개 이상의 점포를 지닌 대형 소매점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사무용품 업계의 공룡이 된 스타플스는 연매출이 3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두 회사는 이미 과거에 합병을 시도한 적이 있다. 약 20년 전, 스타플스와 오피스디포는 합병을 시도했지

만 독과점 금지법 때문에 합병 시도가 무산되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두 회사는 다시 합병을 시도했고, 두 회사의 이사진은 만장일치로 합병안에 서명했다.

스태플스의 론 서전트 CEO는 “이는 회사를 변화시키는 인수다.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또한 빠르게 변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환경에서 회사가 더 효과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피스디포는 지난 2013년 말에 오피스맥스와 합병을 하였다. 연방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피스디포와 오피

스맥스의 합병을 문제삼지 않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타플스는 오피스디포를 인수한 것이다.

매사추세츠 프레밍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타플스는 오피스디포를 인수한 뒤에도 프레밍햄 건물을 두 회사의 본사로 계속 사용할 예정이다. 플로리다에 있는 오피스디포의 본사 사무실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두 회사의 인수합병 소식이 발표된 직후 스타플스의 주가는 1.39달러 하락해 17.62달러에 거래되었고, 오피스디포의 주가는 26센트가 올라 9.54달러에 거래되었다.

jsi@bostonkorea.com

보스톤에서 탄생한 라디오셱 역사속으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소형 가전제품을 팔며 오랫동안 매니아 층의 사랑을 받아 오던 라디오셱(RadioShack)이 조만간 문을 닫을 예정이다. 1921년 보스톤에서 첫 가게 문을 열었던 라디오셱은 현재 파산 신청을 앞두고 있다.

라디오셱은 최근 4천여개의 점포 중 절반을 스프린트에 넘긴다고 발표하였다. 나머지 절반은 가게 문을 닫는다. 아마존에서 라디오셱의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계약에 이르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각한 재정 문제를 겪고 있는 라디오셱은 지난 2일,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다. 같은 날 라디오셱은 뉴욕 주식거래소에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주식 거래 정지 처분을 받고, 상장이 폐지되었다.

초창기 라디오셱은 아마추어 무선 방송가들에게 방송에 필요한 장비를 판매하면서 가게를 확장했다. 1921년 첫 가게를 연 후 미국 동북부 지역에서 점포수를 늘려가던 라디오셱은 1962년 텍사스 기반의 텐디사에 매각되었다.

텐디사는 라디오셱을 무선장비 소매점에 국한시키지 않고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변화시켰다. 1980년에 라디오셱의 주가는 주당 10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번창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전자제품 시장은 베스트바이, 타겟, 월마트 등 대형 소매점이 지배하기 시작했다. 라디오셱은 80년대를 추억하는 광고를 제작하는 등 재기를 노렸으나 결국 실패하고 파산 신청 절차를 밟게 되었다.

jsi@bostonkorea.com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실맛이 건강 선물
2월 22일까지

정관장 최고의 명품 제품
홍삼 추출액

추출액 3종 구매 시 사은품 증정

1) 지삼추출액 구매 시 : 홍삼차 100포 + 홍삼쿨 10포(1set)

절삼추출액/양삼추출액 구매 시 : 홍삼쿨 30포(3set)

2) 추출액 2개 이상 구매 시 : 홍삼원(병) 1set(10병) 추가 증정

FREE GIFT

FREE GIFT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MART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전화주문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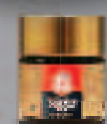
로 주문후 1~2일 안에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 / \$100 이하 \$5 배송비



2월 22일까지

+



FREE GIFT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FREE

NBC 슈퍼볼 시청률 사상 최고 터치다운

시청률 49.7%, 슈퍼볼 시청자도 1억 2천만명 상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우승으로 막을 내린 슈퍼볼 49회가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번 슈퍼볼을 중계한 NBC도 패트리어츠 못지 않는 시청률 터치다운을 기록하게 됐다.

2일 시청률 조사기관인 닐슨은 4쿼터 마지막 순간까지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박진감 넘치는 공방전을 벌인 올해 슈퍼볼 시청률이 역대 최고인 49.7%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3년 슈퍼볼 볼티모어 레이번스와 샌프란시스코 49ers와의 경기에서 작성된 종전 최고 기록인 48.1%를 앞지르는 것이다.

이날 밤 TV를 틀어 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슈퍼볼을 봤는지를 나타내는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우승으로 막내린 49회 슈퍼볼의 MVP 탐 브래디.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의 결승전을 미국인의 절반이 TV로 지켜봤다

점유율에서도 올해 슈퍼볼은 72%로 큰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자 수에서도 1억1천 4백 50만 명으로 역대 최고였으며 이는 지난 48회 시애틀과 패튼 매닝의 덴버 브랑코스의 팩스 TV의 중계방송으로 총 1억 1천 2백 20만명을 뛰어넘는 기록이었다. 오후 9시 45분부터 10시가

지의 순간시청률은 1억 2천만명이 넘었다.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우승이 확정된 경기 막판 순간 시청률은 52.9%로 치솟았다.

올해의 슈퍼볼 30초 TV광고는 4백 50만분에 달했지만 광고주들에게는 만족스런 시청률이었다.

hsb@bostonkorea.com

브래디, 슈퍼볼 MVP 상품 말콤 버틀러 주겠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지난 일요일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시애틀 시호크스의 슈퍼볼 챔피언 결정전에서 종료 바로 직전 시호크스 쿼터백 러셀 윌슨의 터치다운 패스를 가로채 영웅이 된 패트리어츠 루키 수비수 말콤 버틀러가 또 다른 행운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탐 브래디는 보스톤 소재 스포츠 라디오 WEEL 데니스 칼라한 쇼의 올 시즌 마지막 인터뷰에서 말콤 버틀러에게 자신의 슈퍼볼 우승 상품인 웨비 콜로라도 픽업트럭을 주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트럭은 3만 2천여 불에 달한다.

종료직전 패트리어츠 1야드 라인 세컨드 다운 상황에서 시애틀 시호크스는 최강 러닝백이라 평가되는 마산 린치에게 러싱 공격을 맡기는 대신 패트리어츠 수비의 허를 찌르는 패싱 공격을 시도했다. 상대를 허를 찌르는 작전을 잘 구사하는 시애틀 특유의 작전이었지만 그것을 자유계약선수 수로 들어온 루키 말콤 버틀러가 파악해 패스를 가로챘다.

말콤의 인터셉션(가로채기)으로

인해 패트리어츠는 4쿼터 10점차의 열세를 뒤집어서 28대 24로 승리했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경제 미국성장을 앞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주 경기가 지난해 말 미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활성화되었으며 이는 2000년 초반 닷컴 시대 이후 가장 강력한 성장세라고 매사추세츠 주립대(이하 유매스; University of Massachusetts)가 밝혔다.

유매스는 매사추세츠 지난해 4사분기 성장률이 4.7%로 3사분기의 6%, 2사분기의 5.2%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미국전체 성장률은 2.6%로 3사분기 5%, 2사분기 4.6%에 비해 약간 주춤해진 상태였다.

노스이스턴대학의 경제학자 앨런 클레이튼 매튜 교수는 “매사추세츠 주를 비롯한 미국 경제가 느리고 완만한 경제회복세를 벗어나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이번 4사분기 경제성장률 추정치는 매사추세츠 도나휴 연구소와 보스톤 연방준비은행이 협력해 발간하는 분기별 경제저널 매스벤치

마크에 발표된 것이다. 이 저널은 고용 및 실업, 매출 및 소득세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유매스는 지난해 사분기 임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 상승했으며 소비자 지출도 지난해에 비해 5% 상승했다고 밝혔다. 실업률은 지난 9월 6%에서 5.5%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주는 지난 4사분기에 2만4천개의 일자리를 늘려 지난해 총 6만여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는 닷컴 붐이 한창이던 2000년 이래 최고에 달하는 수치다.

이 같은 경제성장의 효과는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저학력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지난해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다. 25세 미만 실업률은 2013년 15.8%에서 지난해 13.5%로 낮아졌다. 고교 졸업자 실업률도 2013년 9.3%에서 지난해 6.9% 줄었다.

hsb@bostonkorea.com



서민의 삶에는 피부로 와 닿지는 않지만 매사추세츠 주의 경제가 지난해 큰 도약을 거듭했다. 사진은 보스톤 연방준비은행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금탑수상**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니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톤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과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과 각 지역에서의 각종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창업중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자리에 집과 사업을 매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e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55
Tel. (617) 869-4989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rangnim

EXCLUSIVE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방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전철역, 미림, 한마루, 서울 설령탕, 한진택배 걸어서 1-2분 거리
내년 9월까지 학생들이 계약되어 있음.
현재 올스턴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LEXINGTON **ACTON** **NATICK**

단독주택 **CONDO(2014년 새집)** **CONDO**
For sale: \$ 799,000 **For sale: \$ 699,900** **For sale: \$ 489,900**
2 BEDS, 2.5 BATHS, 1,811 SQ FT 4 BEDS, 3 BATHS, 3,200 SQ FT 2 BEDS, 2 BATHS, 1,303 SQ FT
학군 좋은 ACTON 지역 학교 좋은 ACTON 지역 NATICK MALL 과 PRIVATE 통로로 연결되어 있음

'백신 논쟁'에 미국 대선후보 가세

최근 미국내 홍역 창궐
오바마 백신 안전하니
안심하고 어린이 접종하라

(워싱턴·서울=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김경윤 기자 = 백신의 부작용과 의무 접종을 둘러싼 논쟁에 미국 차기 대선 잠룡들도 가세해, 2016년 대선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의회 전문 힐(The Hill)이 3일 전했다.

백신 논쟁은 최근 홍역이 잇따라 발병하면서 미국 전역에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보건당국의 경고가 나온 직후에 더욱 수위가 높아졌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2일 한 백신 연구소를 찾아 부모가 자녀에게 백신을 접종시킬지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중에 "아이들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랜드 폴 (켄터키) 상원의원도 CNBC 방송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상적인 아동이 백신 접종 후 심각한 지체장애를 겪는 비극적인 사례들이 많다"며 백신 접종은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폴 의원은 "아이는 국가가 아니라 부모 소유"라며 자녀의 건강을 위해 백신 접종을 할 수는 있지만 정부가 이를 의무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의 대권 잠룡 두 명이 잇달아 백신 의무접종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자 민주당이 공격 호재로 삼고 있다.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즉각 반대 의견을 표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트위터에서 "지구촌을 돌고 하늘은 파랗고 백신 접종은 효과가 있다"며 백신의 효능은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응수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과학은 명백하다"며 "우리가 수차례 살펴봤지만,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 이유만 있고 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전국위원회(DNC)도 성명을 내고 "거의 모든 의사와 과학자들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나라를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는 데도 공화당 유력 인사들이 앞다퉀 반(反) 백신 접종 운동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건 전문가들은 공화당 유력 대권 주자들이 연달아 백신 접종에 회의적인 목소리를 낸 것을 두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세스 무킨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크리스티 주지사나 폴 의원의 발언이 매우 무책임하다며 "이들은 비이성적인 위기에서도 주민

들을 안정시켜야 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첫 번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외과의사 출신이자 공화당 잠룡 가운데 한 명인 벤 카슨도 성명을 내고 "자녀 양육과 관련한 부모의 권리를 강력하게 지지하지만, 공중보건과 공공안전 또한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하다"며 "어떤 전염병은 면역 정책으로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팀 머피(공화·펜실베이니아) 하원 에너지·상업 소위원회장도 3일 청문회를 열어 접종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너무 많은 아동이 홍역을 막을 안전한 백신을 맞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1998년 백신 접종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논문이 발표된 이후 일부 부모들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2010년 해당 논문을 실었던 학술지는 이를 철회했고 논문 저자는 의사면허를 취소당했다.

홍역, 미국 동부에도 확산되나 "감염 대학생 맨해튼서 열차 탑승"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홍역에 걸린 한 대학생이 지난주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차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서부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던 홍역이 동부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ABC방송은 31일 뉴욕 주 더치스카운티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지난주 초 맨해튼의 기차역인 펜스테이션에서 미국철도 여행공사가 운행하는 암트랙 열차를 탔다고 보도했다.

뉴욕 주 주도인 알바니 행 열차를 탄 이 학생은 중간 지점인 라인클리프에서 내렸다고 주 보건 당국

자들이 말했다. 이 학생은 홍역 감염 후 치료 기간에 외부와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 학생이 탔던 열차의 승객들이 홍역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수도 있다면서, 홍역에 노출됐거나 홍역 증상이 나타난 경우 병원에 가기 전 응급실에 먼저 이를 알리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디즈니랜드에서 발생한 홍역은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 유타, 아리조나, 콜로라도 등 14개 주로 확산됐으며 이달에만 84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quintet@yna.co.kr

뉴욕타임스, 온라인 수입 증가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 뉴욕타임스가 지난 4분기에 온라인 부문 구독료와 광고 수입 증가로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3일 발표했다.

많은 신문이나 잡지사들처럼 뉴욕타임스는 인쇄 매체 광고 매출이 감소하면서 온라인 부문 구독료와 광고 수입 확대를 위해 그동안 온라인 부문을 강화해왔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실적 발표에서 작년 초 도입한 '지불 게시물'(paid post)이라는 형식의 광고에 힘입어 4분기 온라인 광고 수입이 19.3% 증가하고 온라인 전용 콘텐츠 구독료 수입도 13.6% 증가했다

고 밝혔다 반면 인쇄매체 광고 매출은 0.2%가 하락해 3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뉴욕타임스는 현재 분기에는 인쇄 광고 매출이 중간 정도의 한자리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뉴욕타임스의 지난 4분기 총매출은 4억4천470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4억4천390만 달러보다 소폭 증가했으며 경상순이익은 고용 삭감 및 온라인 제공물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 확대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9.6%가 감소한 3천500만 달러, 주당 22센트를 기록했다.

kerberos@yna.co.kr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781.391.6200

781.391.7700

78 SWAN ST. MEDFORD, MA 02155
FAX: 781.827.0867 EMAIL: SUNAUTOBODY@YAHOO.COM
WEBSITE: http://sunauto-boston.haninis.com/

Grand Opening

Bliss Image

Open 7 Days

FULL SERVICE DIVERSE SALON AND SPA

- Hair (남녀 헤어컷, 펌, 케라틴 트리트먼트, 하이라이트, 컬러, 코팅)
- Skin (all types Facials and Microdermabrasion)
- Nail (Manicure, Pedicure, Gelnail and Spa)
- Waxing (원하시는 어느 부분이든 됩니다)
- 속눈썹 연장 (Lasts up to 3 months, Water Resistant)
- Body Massage (Swedish and Deep Tissue massage)



Hollywood Lashes
Semi Permanent Lash Extension
•Both men & women can benefit
•Waterproof and weather Proof
•Comfortable and natural just like your own eyelashes


•EYELASH EXTENSION COURSE AVAILABLE
Certification of Completion given

11A Corinth St. Roslindal MA 02131
SHOP: 617.323.0023
CELL: 617.818.5596

Business Hours:
Mon-Sat: 9am - 7pm
Sun: 9am - 6pm
Wanted:
Chair for Rent(Hair Stylist)

MED ACUPRESSURE

지압치료(Acupressure Therapy)
핫스톤
속 눈썹 연장, 웨이셀



전화 예약 : Office.617.795.0095, Cell.617.970.6038
시간 : 월요일 ~토요일 (10am ~8pm)
주소 : 634 Commonwealth ave (#204)
Newton center, MA 02459
website : http://www.medacupressure.com

오바마 2016 예산안 공개 기업, 부자 증세 중산층 살리기

글로벌기업 해외소득 과세,
도로·인프라건설에 투입
유아 프리스쿨 지원 확대
자녀 부양 세금 크레딧 늘려
공화, '대선용' 예산 반발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2일 공개된 미국의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은 소득불균형 해소를 통해 중산층을 살린다는 '오바마노믹스'를 고스란히 구현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 고소득층에서 돈을 거둬 사회 인프라와 교육·복지 확대에 과감히 쓰겠다는 게 그 핵심이다.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에 따라 정해진 예산 상한선을 보완 듯이 740억 달러나 초과했다.

정부 재정지출을 줄이고 '성장'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둔 공화당의 정책 방향과는 배치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을 겨냥한 '백화점식 정책'을 쏟아내 '대선용'이라는 의구심을 짙게 드리우고 있다.

상·하원을 동시 장악한 공화당이 집요한 발목 잡기에 나설 가능성이 커 '오바마표 예산'이 어느 정도 살아남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톱 프라이스 하원 예산위원장과 마이크 엔지 상원 예산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오바마의 희망사항"이라고 일갈했다.

◇글로벌기업에 '세금폭탄'...자본소득 올려 부자증세

오바마 행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2조1천억 달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 핵심은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무대에 활약한 기업들의 해외소득에 19%의 새로운 최저한세(minimum tax)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기업들이 이미 외국에서 벌어들여 보유 중인 2조1천억 달러에 대해서도 일회성의 14%의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공화당으로서는 이 같은 '기업증세'에 극력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오바마 행정부가 '송금세'를 도입하겠다고 했을 때도 공화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기업들의 법인세를 35%에서 28%로 인하하는 방안은 공화당도 수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하나의 재원 마련 방법은 '부자증세'이다. 자본소득세 및 배당이의 최고세율을 현행 23.8%에서 28%까지 올리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인프라 건설에 쏟아붓기... '백화점식' 중산층 예산

이 같은 증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중산층 지원 예산에 투입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향후 6년간 4천780억 달러를 인프라 건설에 투입하는 것이다.

글로벌 IT(정보기술)업체와 제약기업들이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도로, 철도, 항만을 비롯한 국내 인프라 건설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양새여서 공화당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겨냥한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중산층 가정의 최대 관심사인 '아이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는 게 첫머리로 올랐다. 2025년까지 4세 미만의 아동들이 '프리스쿨(유아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7억5천만 달러를 쏟아 붓는다는 구상이다.

또 5세 미만의 아동들 둔 자녀·과부 양가족 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를 세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배우자가 일하는 경우 200달러를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앞으로 10년간 600억 달러를 들여 2년제 대학 등록금을 무료로 만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사회보장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동성커플이 배우자 혜택을 받도록 10년간 140억 달러를 투입할 방침이다.

100만 명에 달하는 퇴직 근로자들이 적어도 3년간 500시간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401k(미국의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2억 달러에 달하는 기술훈련자금도 책정됐다. 주택 및 도시개발부는 올해보다 17.8% 증가한 410억 달러의 재원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주택 재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펜타곤 '조직예산' 지키고 '전쟁예산' 깎아

국방분야 예산안은 시퀘스터가 정한 상한선을 크게 넘겼지만, 이른바 '전쟁예산'은 오히려 크게 줄었다.

조직운영과 인사, 조달, 보수·유지, 연구·개발에 쓰이는 기본예산을 올해보다 380억 달러가 많은 4천900억 달러로 책정한 반면,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대테러 작전 등 대외 전쟁수행에 쓰이는 '해외비상작전'(OCO) 예산은 올해

보다 21%(130억 달러) 감축된 510억 달러로 잡힌 것이다.

펜타곤이 기본예산의 삭감을 피하려고 OCO 예산을 의도적으로 줄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봉급, 전역지원, 복지혜택과 같은 개인적 군사지출을 둘러싸고 의회 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다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전에는 88억 달러가 새로 책정됐다.

새로운 무기구입 예산도 눈에 띈다. 차세대 전투기인 F-35를 57대 구입하는 비용으로 106억 달러가 책정됐다. U-2 고공정찰기와 헬리콥터 등의 구입이 크게 늘어나고 노후화된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에 다시 연료 주입하는 비용으로 수억 달러가 책정됐다.

◇'개인 맞춤형' 의학 연구에 대폭 투입

개인 맞춤형 의학으로도 불리는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에 2억1천만 달러를 투입한 것도 주목된다. 정밀의학은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가진 게놈(genome)을 해독해 질병이 생길 경우 맞춤형 치료 또는 치료제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이 예산은 주로 개인 맞춤형 치료를 위해 100만 개 이상의 유전자 샘플을 연구용으로 수집하는 데 쓰일 전망이다.

처방 오피오이드(아편 비슷한 작용을 하는 합성 진통마취제)와 헤로인 퇴치에도 1억 달러를 투입할 방침이다.

소니 픽처스에 대한 해킹사건의 여파로 내년 예산안에 사이버 안보 항목으로 140억 달러가 책정됐다.

◇우리나라 유치한 기후변화펀드에 5억 달러 투자

우리나라가 2012년 인천 송도에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에 5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는 당초 약속한 30억 달러보다는 낮은 것이지만 미국의 이번 출자가 국제사회의 지원 움직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환경청의 가스온실 규제 기준을 넘어선 주(州)들에게 배급되는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펀드로 40억 달러가 책정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앞으로 10년간 핵무기를 유지·관리하고 관련시설을 재건하는데 향후 10년간 3천480억 달러를 쓰기로 했다.

비확산 전문가들은 당초 '핵없는 세상 구현'을 기치로 내걸고 핵무기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오바마 행정부의 약속이 '공약'(空約)이 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선 후보 쥘 부시, 고교시절 대마초 피고, 동급생 괴롭혀

보스톤 글로브와 인터뷰서 밝혀

앤도버 필립스 아카데미 재학

동급생들, 거만했다 주장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2016년 미국 대선의 유력한 공화당 후보인 쥘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31일 고등학교 재학 중 대마초를 피운 사실을 밝혔다.

부시 전 주지사는 이날 보스톤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명문 사립학교인 필립스 아카데미 재학 시절 "앤도버에 있는 동안 술도 마시고 마리화나도 피웠다"고 전했다.

부시 전 주지사의 아버지인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과 형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매사추세츠주 앤도버에 소재한 필립스 아카데미 동문이다.

부시 전 주지사는 자신이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마리화나 흡연은 "상당히 일반적이었다"고 전했다.

그의 동창인 피터 티베츠도 보스턴글로브를 통해 부시 전 주지사과 함께 마리화나를 피던 당사를 회상했다.

티베츠는 "부시와 함께 처음으로 마리화나를 피웠다"며 "부시가 (마리화나를 권하며) 탈부착식 스피커가 붙은 휴대용 라디오로 스테픈 프(캐나다 록밴드)의 노래를 틀어줬다"고 말했다.

티베츠는 이후 마약(코카인) 복용 의혹으로 퇴학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베츠는 부시 전 주지사가 덩치가 큰 다른 친구와 함께 "기숙사에 살던 한 학생의 잠옷 바지 밑단을 꼬매 바지를 입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다른 학생을 괴롭혔던 일화도 공개했다.

부시 전 주지사는 이 일화에 대해 "사실일 리 없다"고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시 전 주지사가 다른 학

생들을 괴롭힌 일화가 소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1년에도 부시 전 주지사의 동창생이 배니티페어를 통해 부시가 "다른 학생들을 괴롭혔던 학생(bully)"이었으며 "거만했다"고 밝혔었다.

부시의 이같은 행각은 현재 마약 문제 등에 있어 보수적 견해를 펴온 그와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부시는 플로리다 주지사로 재직하며 비폭력적 마약 복용자들을 재활 시설 대신 교도소에 수감하고 마약 범죄자들을 의무 수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 처벌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플로리다주내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부시 전 주지사는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플로리다 주정부와 주민들은 이곳을 사업하기 좋은 곳, 여행하기에 친근한 곳, 가족을 만들거나 은퇴후 삶을 이어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의료 목적을 가장해 플로리다 주에서 대마초를 허용한다면 이 모든 노력에 어긋나는 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같은 당 잠룡 중 한 명인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은 부시 전 주지사의 '위선'을 강하게 비난했다. 공화당 경선서 부시 전 주지사과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폴 의원은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을 통해 "의료용 대마초에도 반대했던 사람이다. 자신은 대마초를 피었던 사실을 인정했으면서도 똑같은 사람들을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맹비난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대선후보 2위를 달리던 부시 전 주지사는 지지율 1위로서 그와 성향이 겹치던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전날 대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가장 유력한 공화당 후보로 떠올랐다. chung@news1.kr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블랙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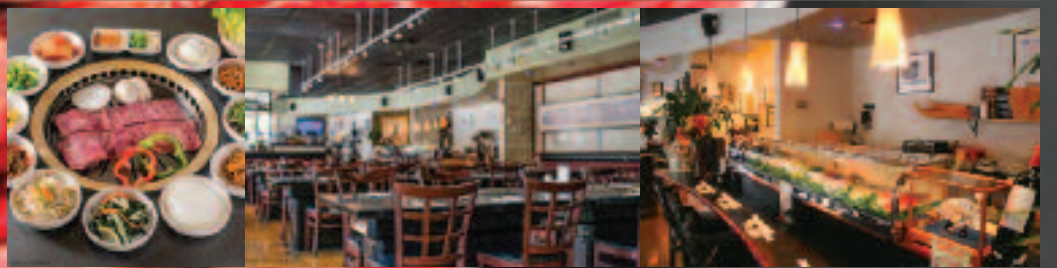
BEST OF BOSTON
2000



Parking Information

-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최상급 블랙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헤어 앤드 그레이스 살롱

처음 고객님 20% 할인

올가닉 트리트먼트

헤어컷
컬러, 하이라이트, 코팅
트리트먼트
Up-Do
메이컵
왁싱
각종 펌



예약문의

508-879-7777

Natick Mall에서
3분 거리

914 Concord St.
Framingham, MA 01701

야 당권주자 '감정싸움' 점입가경...라디오서 공세 이어가

문 "박지원, 당권-대권 분리 말바꿔"
박 "문재인 되면 '반칙당' 될 것"
이인영 "패권구도 해체해야"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경선에 나선 문재인·이인영·박지원(기호 순) 후보의 감정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세 후보는 5일 오전 각각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서로 비난하고 나섰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나와 박지원·이인영 후보를 공격했다.

문 후보는 "박 후보가 원내대표로 있던 2010년 10월에 '당대회에 우리 당 대선주자들이 다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때는 전대를 구경하는 입장이었고, 지금은 본인이 직접 출마했으니 경쟁자인 저를 공격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다른 논리를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의 '당권-대권 분리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된 경선 여론조사 관련 시행세칙 변경 논란과 관련해서도 "선거 막판에 경선 룰을 선수들이 개입해서 바꾸려고 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생겼다"고 박 후보에게 책임을

돌렸다.

문재인·박지원 후보의 비방전을 잡아 비판하고 있는 이인영 후보에 대해서도 "마치 제3자처럼 어부지리로 (표를) 얻으려는 그런 입장에서 말하면 안된다"며 "전대를 네거티브로 혼탁하게 만드는 원인들을 제대로 지적하고 문제삼으라"고 날을 세웠다.

BBS라디오 '양창욱의 아침저녁'에 출연한 박지원 후보는 경선 시행세칙 변경 책임을 문 후보 쪽에 떠넘기면서 "문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도로 '반칙당'이 될 것"이라며 "여의도 정치에 들어온 지 2년 반 만에 어떻게 하루 전 규정을 바꾸고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시켜서 불법·편법 선거운동을 하나"고 비난했다.

박 후보는 "문 후보가 손석희 JTBC 앵커의 사진을 도용해 동영상으로 만든 것이 발견돼 손 앵커의 항의를 받고 사과를 하고 내렸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공세를 퍼기도 했다.

이인영 후보는 YTN라디오 '신윤의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로 나선 박지원, 문재인, 이인영 후보(왼쪽부터)가 4일 광주 KBC 방송국 사옥에서 열린 TV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출발 새 아침'에서 "문재인, 박지원의 이름으로 우리 당의 분열을 뛰어넘을 수 없다"며 "친노-비노, 영남-호남 이런 패권구도는 다 해체해야 한다"고 두 후보를 겨냥했다.

이 후보는 경선 시행세칙 변경 논란에 대해서도 "선수가 경기 도중 경기 규칙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며 "누가 봐도 자신들의 유불리를 타산하는 문제, 이해득실을 따지는 문제가 됐다"고 두 후보 모두에게 책임을 돌렸다.

세 후보가 그나마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박근혜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내용이었다. 세 후보 모두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을 비판하면서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했다.

문 후보는 "우리가 가야될 길은 당장 고(高)복지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중(中)복지 수준까지는 가야 되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세부담을 조금 더 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법인세·종부세 삭감한 것만 원상복귀 시켜도 연간 10조원의

세수가 늘어난다"며 "법인세, 종부세를 환원시키고 필요에 따라서는 '부자증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후보는 "박근혜정부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를 세운다) 정책부터 폐기해야 한다. 줄푸세는 그대로 두고 증세 없는 복지나 법인세 원점 재검토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조세정의를 세우기 위해 재벌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indy@news1.kr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Quincy College
Middlesex Community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FEB. 6TH - FEB. 12TH, 2015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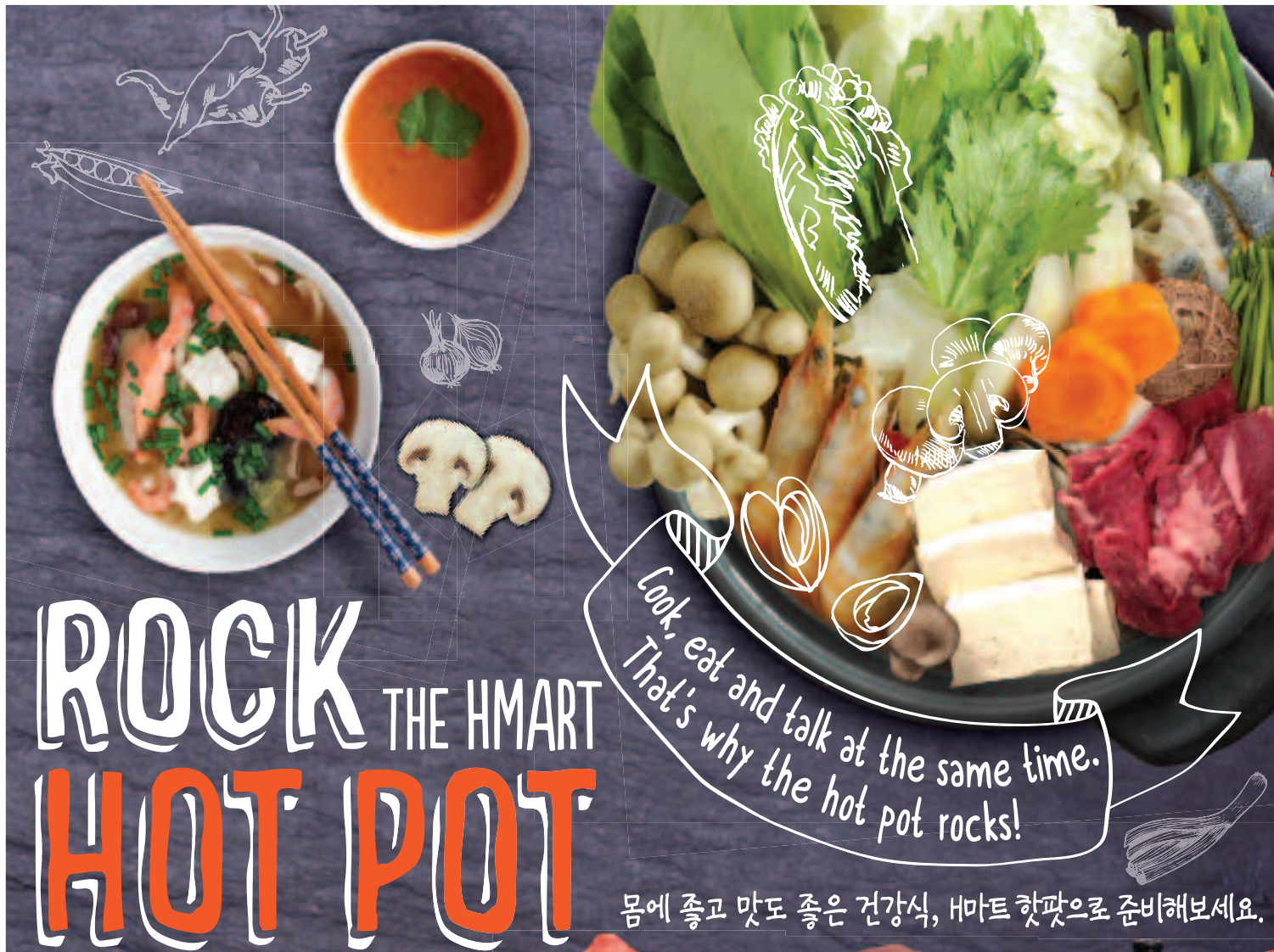
WIN THE NEW 2015 TOYOTA RAV 4 XLE

CUSTOMER APPRECIATION SWEEPSTAKES

Until April 9th, 2015
 at All MA Stores (Drawing Date: April 12th, 2015 @ 4pm)
 Simply insert the bottom of your shopping receipts in the Sweepstakes Drawing Bin & you could be a winner.
SMART CARD MEMBERS ONLY WITH OVER \$20 PURCHASE.
 2015년형 토요타 라브 4 XLE의 당첨 기회를 잡으세요!
 H마트 MA 매장 스마트 카드 고객은 \$20이상 장을 보신 후 영수증에 찍힌 응모권으로 응모하시고 행운의 주인공이 되세요!



2015 RAV 4 XLE
TOTAL 83 WINNERS!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please see poster or customer service.



ROCK THE HMART HOT POT

Cook, eat and talk at the same time.
 That's why the hot pot rocks!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건강식, H마트 핫팟으로 준비해보세요.

<p>POLLACK ROE 냉동 동태알 \$6.99/lb.</p>	<p>ORGANIC KING OYSTER MUSHROOM 유기농 새송이 버섯 \$3.99/8oz./pkg.</p>	<p>SLICED BEEF SHORT PLATE 냉동 삼겹양지 슬라이스 \$7.99/lb.</p>	<p>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1.49/lb.</p>	<p>여보홀 전기불판 w/ 샤브샤브 냄비 YOBO HOME ELEC. HOT POT W/ BBQ GRILL \$47.99/HSK-120/60- ea.</p>
---	--	---	---	--

33년 전통의 미국 최대 고국선물관
한마름 고국통신한매
 Show your love and appreciation to your loved ones with Hmart.com
 명품한우, LA갈비, 굴비, 전복, 설 차례용 과일세트 등 인기상품 최대 15% 할인!
 전화주문: 201-229-1111
 인터넷 주문: www.hmart.com
 2월 19일 설맞이 특별할인!

JINGA
 The Finest Korean Tradition
EVERYTHING TASTES BETTER WHEN IT'S JINGA
 100% 쌀과 천연재료를 사용한 진가 생 떡국떡은 맛이 다릅니다.
 미리 대량 주문하시면 더욱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5 lbs./pkg. \$4.29
 3 lbs./pkg. \$6.99

<p>Fuji Apple 후지 사과 lb. \$1.49</p>	<p>Singo Pear 신고배 박스 box \$24.99</p>	<p>Onion 양파 10 lbs./bag \$4.99</p>	<p>Beef Heel Meat 사태 lb. \$6.99</p>	<p>Whole Chicken 통닭 lb. \$1.79</p>	<p>Marinated Sliced Beef Rib 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lb. \$6.99</p>
<p>Beef Bones 냉동 사골 lb. \$1.49</p>	<p>Cod Fillet 대구 전갈 lb. \$5.99</p>	<p>SUHYUP Yellowtail 수협 냉동 방어 lb. \$1.99</p>	<p>Salted Mackerel 자반 고등어 lb. \$3.99</p>	<p>TONGTONGBAY Premium Oyster 통통배 청정생굴 8oz./pkg. \$3.99</p>	<p>SAM SU GAB SAN Brown Rice 삼수갑산 현미 15 lbs. \$12.99</p>
<p>NONGSHIM Shin Cup Noodle Soup 농심 신 작은 사발면 2.64oz. x 12ea./box \$9.99</p>	<p>KWANG CHUN Green Tea Seasoned Laver 광천 녹차김 0.7oz. x 10ea./box \$9.99</p>	<p>K TOWN Bibimbap/Japchae 케이타운 비빔밥/잡채 9.87 - 10.83oz. \$3.99</p>	<p>HARIM Instant Ginseng Chicken Stew 하림 즉석 삼계탕 28.21oz. \$9.99</p>	<p>HANSUNG Kamaboko Rice Cake 한성 참떡궁합 가미보교 1.1 lbs. \$3.99</p>	<p>CHORIPDONG Seasoned Dried Squid 초립동이 오징어채 매반식/불고기 3.52oz. x 2ea./pkg. \$6.99</p>
<p>HAIOREUM Canned Mackerel Pike 해오름 꽂치 통조림 14.1oz. 2\$3 ea./for</p>	<p>CROWN Corn Chips 크라운 콘칩 5.85oz. \$2.99</p>	<p>KWANG DONG Herbal Tonic Drink 광동 생화탕 3.3fl.oz. x 10ea./pkg. \$4.99</p>	<p>ARIZONA FARM Natural Honey 아리조나 꿀 5 lbs. \$19.99</p>	<p>SCOTT Bathroom Tissue 스캇 화장지 20rolls/pkg. \$14.99</p>	<p>VISIONS Glass Pot 비전스 유리 내열 냄비 2.25L/ea. \$39.99</p>

여 '증세 없는 복지 불가' 선언 후 증세와 복지 공방 치열

김무성 "현재로서는
법인세 인상 안돼"
유승민 "법인세도
성역 아냐"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폐기를 선언한 뒤 정치권 내에서 증세와 복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대표는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틀에서는 벗어났지만 증세보다는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대표는 무상복지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선별적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5일 오전 전국 최고 경영자 연찬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복지 부문에 중복지 부정 지출이 많은데 이런 걸 조정하고,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줄여서 세출 조정을 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도 안될 때 증세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유 원내대표의 '법인세 인상도 성역 아니다'는 발언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법인세 인상은 안된다. 정당 지도자는 증세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이라고 못 박았다.

유 원내대표는 증세와 무상복지에 대해 김 대표와는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복지 지출 구조조정으로 줄일 수 있는 복지 지출이 크지 않다고 증세 쪽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 현재 '저부담 저복지' 수준인 우리나라 복지 수준을 '중부담 중복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평소 그의 소신이다. 이 때문에 야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성역일 수 없다"며 다소 전향적인 견해를 밝혔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증세나, 복지 축소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 대부분은 증세보다는 무상복지 재조정을 통한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5일 최고위원회 의회에서 "어려움이 많은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증세는 적절치 않다"면서 "기업들의 경제살리기 활동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법인세 인상 문제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경영자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무성 대표

다. 이 사무총장은 "먼저 과유불급한 복지는 조정하고 그 후에 국가재정을 감안해서 복지체계 모델을 모색하는 차원으로 가닥을 잡아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김 대표와 입장을 같이 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세금을 올리기 어렵지만 쪼들던 복지를 뺐는 것은 더 어렵다"면

서 "복지 축소라고 말하면 그것은 완전히 핵폭탄"이라며 무상복지 축소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두언 의원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증세 없는 복지 논쟁은 불필요하고 복지는 확대해야 한다. 복지를 늘리는 것이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내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복지 축소와 증세 중 하나를 선택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 때문에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전날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범국민 조세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해 일단 찬성의 뜻을 밝히고 당내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새 복지 모델을 만들 계획이라며 향후 추진과정 있어 신중론을 폈다.

haru@news1.kr

유승민 "박근혜 정부, '증세 없는 복지' 감히면 곤란"

(서울=뉴스1) 김유대, 유기림 기자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의 틀에 갇혀 있으면 남은 임기 동안 곤란하고 답답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정책 기조의 변화를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국민이 거의 다 알고 있다. 연말정산 파동과 담뱃세 인상 등을 겪으면서 이제는 세금을 더 부담할지 높은 수준의 복지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할지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연말정산 파동에 대해 "분명히 증세인데 증세가 아니라고 국민을 속인 문제가 있다"며 "복지를 더 할 것인지, 세금을 더 못올리냐면 복지를 현 수준에서 동결 내지 축소할지에 대해 여야가 정략적으로 싸우지 말고 국민에게 설명을 하며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김무성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당장 세금을 올리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며 "세금을 올리거나 복지를 동결 내지는 축소하는 문제는 여야 합의가 충분해야 하고, 국민적 동의나 선택도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증세를 한다면 당연히 가진 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며 "어떤 세금을 언제 어떻게 올릴 것인지는 사회 정의나

조세 형평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을 둘러싼 정부의 정책 혼선에 대해선 "당 정책위의장과 정부를 상대로 건강보험료 추진 방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어보고 수정할 점이 있으면 수정하겠다"며 "당초에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려던 취지는 옳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추진하겠다. (건강보험료 개편을) 완전히 백지화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당청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가 잘할 것으로 기대하고 청와대와 정부가 원하는 입법과 예산을 거수기 소리까지 들어가며 따라줬다"며 "그런 방식으로는 청와대와 정부가 그동안 잘못했을 때 견제를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내각 인적 쇄신 목소리와 관련해서는 특정 인사를 지칭하지는 않으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인적 쇄신을 해달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서는 "정책, 인사, 국민과의 소통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국민 불신과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며 "기존의 당과 청와대, 당과 정부의 관계에 일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와) 주도권 싸움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당청이 갈등에 들어간다는 걱정은 안해도 된다. 더 잘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자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ydskim@news1.kr

김무성, 법인세 인상 마지막 선택 복지로 국민 나태 발언 논란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5일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재점화하는 법인세 인상 논란과 관련해 "법인세 인상은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조선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특강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장사가 안되서 세금이 안들어오는데 세금을 더 올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법인세 인상이 '절대' 안된다고도 말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법인세 인상은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복지는 비가역성이 특성이라 지금까지 한 것을 되돌릴 수는 없다. 복지에는 부정과 중복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발본색원해서 조정하고, 그다음엔 세출 조정을 해야 하고 SOC를 줄여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하다가 하다가 안될 때 증세로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자신의 발언이 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닌 정치권 전반에 대한 자성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복지모델을 만들어야 하고, 지금 불이 붙은 복지 논쟁을 통해 국민의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같은 자신의 주장이 박근혜 정부의 기초와도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다.

김 대표는 전날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한 국회 조세개혁특위에 대해서 "잘 됐다. 여야가 같이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대표는 6일 열린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관련 당정책회의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그동안 다 정해놓고 발표 직전에 당정책회의를 한 뒤에 끝내버렸는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총 강연으로 인해 자신이 불참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을동 최고위원이 제안한 기업인 사면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대표는 이날 경총 연찬회 특강에서는 "복지 과잉으로 가게되면 국민은 나태해지고, 나태해지면 필연적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된다"며 "복지수준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복지논쟁에 불이 붙는 것은 참된 일이다. 더 붙어야 한다"며 "어떤 유형의 복지 제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 더 치열한 논란을 벌여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복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rewhat@news1.kr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감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감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책임 진료

닥터스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환부가 손상되기전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룩라인, 월섬)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룩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박종철 사건 담당검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논란

박종철 사건 담당검사
사실 처음에는 은폐
- 야 "박상옥,
자진사퇴해야"
- 여 "청문회 이후
판단해야"

(서울=뉴스1) 박상희, 이정우 기자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가 거친 장외 공방을 벌였다.

국회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인청특위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은 국가권력이 부당하게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유린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를 은폐하고 조작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참여한 인물을 대법관 후보로 천거했다"며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수 국민들은 박 후보자가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며 "대법관 구성 다양성 확보와 소수자 권리 옹호의 적격 유무를 떠나 대법관으로서 사법정의를 실현하기에 부적절하기에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이날 '박종철 사건' 논란 이외에 업무추진비를 축소했다는 또다른 의혹도 제기됐다.

인청특위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박 후보자의 형사정책연구원장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설 선물 및 간담회 등으로 약 882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해당 기간 박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882만원에 불과했는데 박 후보자의 수행비서는 113건 2013만원 가량의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10만원 이상 식대도 1826만원이었다"며 "사실상 박 후보자의 수행비서가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 후보자를 옹호하고 나섰다.

인청특위 여당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박 후보자의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1987년 1월 고문 경찰관 2인이 서울지검으로 송치된 후 1차 수사가 마무리됐고 박 후보자는 이후 고문 경찰관 3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선배 안상수 검사(현 창원시장)로부터 듣게 됐다고



임기가 끝나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내정된 박상옥 후보자

한다"며 "그러던 중 박 후보자는 정기 인사에서 여주지청으로 전보발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박 후보자는 여주지청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웠다고 한다"며 "1987년 2차 수사가 계속되자 서울지검으로 임시 파견돼 고문 경찰관 3명을 추가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당시 3년차 말석검사라는 위치로 인해 수사의 전반 상황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며 "고문 가담자가 3명이 더 있다는 말을 들은 후에도 여주지청으로

전보돼 이후 상황에 관여할 수 없던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사퇴를 거론하는 것은 반민주적 처사로 인사청문회 개최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청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계획을 채택하려고 했으나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개입 의혹에 따른 여야간 공방으로 파행됐다.

야당은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우선 인사청문회를 열어 박 후보자

의 해명을 듣고 나서 판단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결국 인청특위는 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정회됐다.

야당은 이날 자체회의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개최할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모았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청문회 증인·참고인에게 송달할 출석요구서 발송 시한이 6일까지인 만큼 하루를 더 기다려 박 후보자의 해명 혹은 자진사퇴에 대한 답변을 들은 뒤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sanghwi@news1.kr

박상옥 후보자 인사청문회특위 파행...야 "자진사퇴해야"

11일 청문회 일정 차질
가능성
여 "일단 청문회 열어
검증할 문제"

(서울=뉴스1) 진성훈, 이정우 기자 = 여야는 5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야당 의원들이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회의가 파행됐다.

국회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여

야 간사에 이한성 새누리당, 전혜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선출했다.

그러나 이어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논의하기 앞서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야당 의원들이 박 후보자가 과거 19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의 일원으로 당시 사건 축소·은폐에 가담했다는 점을 들어 자진사퇴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서면서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하는데 가담했던 사람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가) 고문을 묵인하는 것이 괴로웠다는 말에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서기호 정의당 의원 역시 "박 후보자는 6월 항쟁의 계기가 됐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 일원으로서 축소수사의 실제적 진실을 덮어버린 일원"이라며 "대법관은 실제적 진실을 밝혀내는 사람인데 이런 분이 어떻게 대법관이 되어 외압을 이겨내고 공정하게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우선 청문회를 열어 박 후보자의 해명을 듣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저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갖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역사적 의미에 관해선 전적으로 같은 의견"이라면서도 "다만 박 후보자가 그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가담했다는 것은 당사자 해명을 듣기 전에는 성급한 결론인 것 같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따져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은 "당사자를 불러 충분히 소견을 듣고 11일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수 있을 텐데 아무 서류도 없고 당사자도 없는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공직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며 "예단으로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후보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 간 이견으로 인사청문회 계

획서 채택 및 자료제출요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등의 정상적인 의결 절차가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이종걸 위원장(새정치연합)은 여야간 협의를 위해 일단 정회를 선언했다.

특위는 여야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오후 중 전체회의를 속개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여야는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1일 실시한 뒤 12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11일 인사청문회를 위해선 늦어도 6일까지는 증인·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해, 특위 파행이 길어질 경우 청문회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true@news1.kr

저희들은 가입에서 건강검진 및 그 기간 중의
모든 단계에서
항상 함께 합니다.

Tufts Health Plan - Network Health 는 모든 단계에서 고객과 함께 합니다. 저희들은 고객에게 최고품질의 적절한 건강진료 서비스를 받도록 쉬지 않습니다.

오늘 가입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GetNetworkHealth.com 에서 확인하세요.

TUFTS Health Plan
NETWORK HEALTH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강플랜의 모든 옵션에 대해서는 MAhealthconnector.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4 Tufts Health Public Plans, Inc.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하고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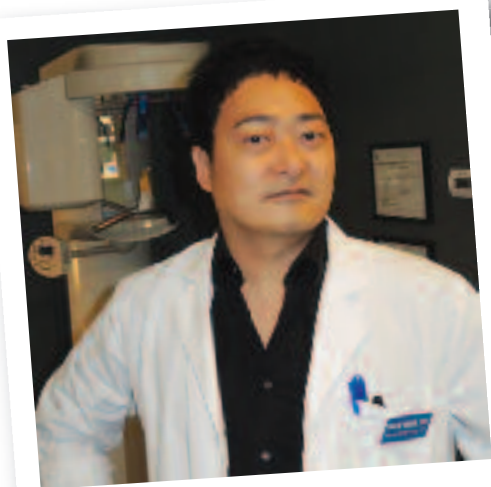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Eugene Khang DMD(강유진)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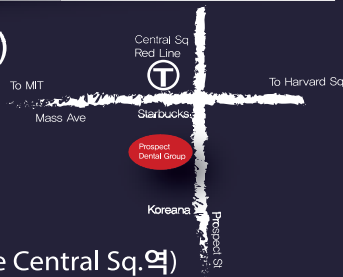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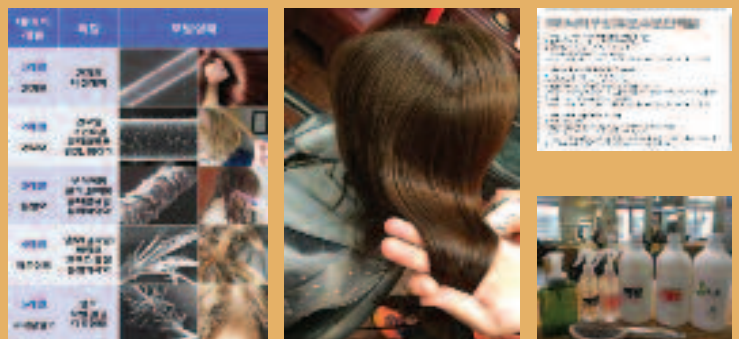


Salon Sabrina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파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남자컷 25불/여자컷 30불/파마 70불 부터
디지털 130불 부터/케라틴 매직 220불 부터 시작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타트업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진실을 인양하라"...세월호 도보행진단 전주 도착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며 도보행진을 하고 있는 '세월호도보행진단'이 4일 전북 완주 삼례를 지나 전주에 도착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달 26일 경기도 안산을 출발해 도보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목적지는 전남 진도 팽목항으로 14일 도착 예정이다.

이날 도보행진은 세월호 유가족 40명을 비롯해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북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세월호전북대책위원회와 완주자활지원센터, 지역 교회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진실을 인양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온전한 선체 인양만이 실종자를 가족 품으로 돌릴 수 있다"며 정부에 선체 인양을 촉구했다.

또 "현재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는 상태"라며 "정부는 약속한대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확한 진상 조사를 위해 선체를 인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박모(49)씨는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정부는 진상 규명에 힘쓰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온전한 인양이 가능하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선체 처리부서만을 조직했는데, 선체 인양부서를 즉각 만들어 온전한 인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보행진단은 이날 오전 우석대 정문을 출발해 전주종합경기장 등을 거쳐 오후 5시계 풍남문 광장에 도착해 마무리 행사를 진행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이 추운 날씨에 우리의 어린 학생들이 실종된 차가운 현실에 대해 발언



김승수 전주시장이 4일 전북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진행된 '세월호 도보행진단'의 마무리 행사에 참석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있다

해 가슴이 아프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세월호가 인양돼 참사가 확실히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보행진단은 5일에도 전주 시내 곳곳을 돌며 도보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오후 8시 전주 고백교회에서

유가족 간담회를 가지고, 이튿날 오전 일찍 정읍종합경기장으로 출발한다. whicks@news1.kr



배상문 선수가 4일 인천 송도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열린 제30회 신한동해오픈 프로암 경기 18번홀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날리고 있다

군입대 논란 배상문, '국외여행연장 불허가 정지 신청' 각하

(대구·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대구경북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프로골퍼 배상문(29)이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낸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각하됐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배상문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20일 접수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거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허가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기간을 연장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배상문의 법률대리인은 "배상문 선수에게 징집명령이 발령되면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없게 돼 2017년 PGA투어 시드 배정권과 그동안 미국에서 쌓은 경제적·인적 기반을 모두 잃게 된다"며 "오는 10월 열리는 프레지던트컵, 내년 6월 브라질 올림픽에도 참가할 수 없어 세계 최고 골퍼라는 꿈을 목전에 두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호소했다. 배상문의 법률대리인은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지난 2일 대구지법에 항고했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상문은 2013년부터 미국 영주권을 얻은 후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31일자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돼 지난달 31일까지 귀국,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PGA투어 출전을 이유로 귀국하지 않자 병무청이 지난 4일 배상문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배상문이 국내에 입국할 경우 통보를 해 줄 것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배상문의 혐의가 병역법 위반이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긴급히 체포해야 할 사안이 아니어서 체포영장 발부 등의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pen2408@news1.kr

MB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정치적·법적 논란만 커져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최진모 디자이너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발간됐다. 회고록이 발간되기 전부터 그 내용을 둘러싼 각계각층의 도의적 비난이 쏟아졌다.

이는 이욱고 △세종시 수정안 △남북정상회담 △한·미 FTA 쇄고기 협상 등 전

현 정권 국방 외교와 관련 사안, △4대강 사업 △자원의외교 등 국정조사를 앞둔 사안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낳았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가기록물 공개로 인한 법적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yeoulim@news1.kr

책안권을 냈다 그리고 논란은 커져만 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출간 직후에 담긴 MB의 자행!

- "4대강사업은 한국이 세계금융위기 극복에 역할"
- "광우병 사태, 한미관계 복원의 정책의지를 관철했다"
- "퇴임인지 2년도 안된 상임에서 자원의외교 평가 문제상은 건 '우물거에서 승승장구'"
- "정말 쉬지 않고 뛰었고 신나게 일했다"
- "다 잘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해냈다"

이름본각계반응은? 일단 '도의적' 논란

▶ "명만" 회고록이 아니다 "국외여행"

이준구 서울대학교수

"4대강사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 자기편 개가가대소일 일, 이 세상 모든 대학의 경제학 교수? 사표 내고 MB를 스승 삼아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손석희 JTBC

"이것은 회고록이 아닌 회고록이 아니다."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출간했을 때 (뉴욕타임즈)는 이런 평을 내놨습니다. '특지기 아닌 자기 자신과 자신을 어찌 봐줄 민중들 역사 기록자를 위해 주절대는 한 남자의 소리일 뿐이다.'"

신중환

"MB의 자행이 정말로 역겹다. 도대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뭘 잘했다고, 누가 실지부 아니랄까봐, 잘 모른게도 실지부."

JESSICA BEAUTY

한국 종합 화장품 | 참존 화장품 직영

시선집중 잡티개선, 주름개선, 탄력개선, 미백까지...

“화장품에도 당신의 인격과 품격이 묻어납니다”

나만의 화장품으로, 내 피부는 내가 만든다.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상륙 참존 스킨타운샷에서 피부관리 하시는 멤버에게만 사용하는 제품

처진 피부에 희소식

스킨타운 프리미엄 리와이징 크림으로
처진 피부를 개선 (탄력강화.조직이 살아납니다)
잡티 개선 참인셀 비타민C.E크림



617.770.0188
온라인 쇼핑몰 오픈 | 무료배송

JessicaSecret.com

219 Quincy Ave. #31-A, Quincy, MA 02169
金門 Kam Man Food 중국마켓 안에 있습니다

보스톤 근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Improve your academic performance and test scores at TAHS to achieve your goals.

2015 Spring Step Up Academic Tutoring Program

FEB 7 - MAY 16

15 GROUP SESSIONS
10AM - 5PM

* schedule adjustable upon request

SUBJECTS

- English (2 hrs/wk)
- Math (2 hrs/wk)
- Science (2 hrs/wk)

available for 3-10th graders

Test Preparation

TOEFL



ETS Official Test & Teaching Center

SAT class also available

* Subjects and tuition can be changed based on your needs and request. Please ask us for more details.



Past Students' Acceptances:

- | | |
|--------------------|---------------|
| T. Lee (Seoul) | Stanford |
| T. Kang (Newton) | Princeton/MIT |
| H. Kim (CA) | Harvard/MIT |
| J. Kim (RI) | U. of Chicago |
| H. Chung (Belmont) | Northwestern |



"For this important time in a student's career, we provide the edge to get ahead and master the skills necessary for these exams. I really enjoy teaching and developing the students' academic abilities and I feel that it really does make a difference."

-William Jameson (TAHS instructor)
Harvard University



"TAHS helped me achieve great results in a very short time. TAHS gave me more than test preparation. Through support and encouragement, My TAHS mentor inspired confidence. Above all those things, the academy was more than a place to go and study, it was also a place for my bright future."

-V. Maeng (TAHS Student) Wellesley College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답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경렬

오빠스시 OPPA SHUSHI

www.oppasushi.com

사시미:
싱싱한 광어와 혼마구로 참치, 방어, 헌류나, 레드스내퍼, 생굴과 생우디, 한지외무침과 매운탕까지

스시와 롤:
싱싱광어, 혼마구로 참치, 스크리시 셀몬, 하마리, 장어, 새우, 오징어 등등

**사시미 폭코스
김밥**

안녕하세요 교민여러분,
일스런에 위치한
저희 오빠스시에서
싱싱하고 맛있는 사시미와
스시, 롤과 김밥을
**365일 캐더링
예약 판매합니다.**
각종모임에 애용바랍니다.

617-202-3808 •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30분
담임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GPS 주소: 8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s Double-Ly Parish of Korea Church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오전 10시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30분
(목) 오후 7시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서틀서비스(요청시)
(http://stdaveluychurch.org/오시는길)
11:15 am, 리버사이드역 → 성당
미사 30분 후, 성당 → 리버사이드역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양: 주일 12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69.5809

보스톤 남부지역 보스톤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

엔티비(NTV)가 티브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한국 방송 3사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TV는 사랑을 싣고

발렌타인데이 특별 할인!
무제한 시청 월 \$ 29.99
2월 28일까지(2년 약정시)

문의 및 예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OCN, Olive, OCN

“보스톤에는 보스톤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톤코리아는
보스톤 언론으로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바른 길을
건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보스톤 한인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617.792.6876
bostonkorean@hotmail.com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PGA

주니어 레슨
성인 레슨
그룹 클리닉
전지 훈련 (Florida)



CHARLIE CHI, PGA
PGA Professional

PGA Class A
IMG Florida Professional
JPGA & KPGA Teaching
Mini Tour Teaching



508.277.8247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 617.877.3435

Fax: 617.566.7982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패트리어츠 챔피언 시즌 돌아보기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2004년 시즌 이후 10년만에 수퍼볼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이로써 패트리어츠는 빌 벨리치-탐 브래디가 콤비를 이룬 14년 동안 4번의 수퍼볼 우승을 차지하며 명실상부 최고의 풋볼팀임을 증명했다.

패트리어츠는 현대 풋볼에서 최강의 수비팀으로 꼽히는 시애틀 시호크스를 상대로 28 대 24, 역전승을 일궈냈다. 수퍼볼 역사상 최고의 명경기로 꼽히는 이번 경기는 평균 TV 시청률 49.7%, 1억 1천 4백만명이 TV로 시청하여 가장 많은 시청자가 본 미국 TV 프로그램이 되었다.

모든 풋볼팀들이 시즌 시작과 함께 수퍼볼 우승을 목표로 삼지만 시즌이 끝날 때 우승 트로피를 안을 수 있는 팀은 한 팀뿐이다. 최고의 시즌을 보낸 패트리어츠의 지난 1년 동안 주요 발자취를 살펴보자.

드래프트

지난 시즌 AFC 챔피언십 경기에서 브롱코스에 패한 패트리어츠는 수퍼볼 진출을 위해 필요한 선수들을 드래프트에서 찾아 나섰다. 벨리치 감독이 1라운드에서 선택한 선수는 디펜시브 라인맨 도미니크 이즐리. 이즐리는 강력한 패스 러셔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지만 대학 시절 부상을 당한 무릎이 문제였다. 이즐리는 무릎 재활 훈련을 병행하며 경기에 나섰지만 결국 시즌 막

바지에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패트리어츠가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뽑은 선수는 쿼터백 지미 거라폴로였다. 패트리어츠가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쿼터백을 뽑았다는 것은 기존의 백업 쿼터백이었던 라이언 맬렛을 트레이드 시키면서 주전 쿼터백 브래디의 백업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였다. 거라폴로는 브래디의 뒤를 가능성이 있는 선수지만, 2014 시즌에는 승부가 확실하게 결정된 경기에만 종료 직전에 몇 차례 출전했을 뿐이다.

프리 에이전트

패트리어츠는 프리 에이전트 시장에서 그다지 많은 돈을 쓰지 않는 팀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올해는 리그 최고의 코너백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대럴 레비스를 영입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레비스는 상대팀의 가장 중요한 리시버를 맨투맨 수비로 경기장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최고의 수비수다. 레비스의 영입만으로 패트리어츠의 패스 수비는 하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레비스 외에도 패트리어츠는 시호크스에서 코너백 브랜든 브라운너를 영입하고, 세이프티 패트릭 청을 다시 불러들였다. 패스 수비를 단단히 한 패트리어츠가 공격 부분에서 영입한 주요 선수는 와이드 리시버 브랜든 라펠이다. 패트리어츠가 프리 에이전트 시장에서 영입한 4명의 선수는 정규 시즌은 물론 수퍼볼 우승에도 크게 기여했



328야드 패스, 4개의 터치다운으로 패트리어츠의 수퍼볼 우승을 견인한 쿼터백 탐 브래디가 수퍼볼 MVP에 선정되었다

다.

시즌 전반기

돌핀스를 상대로 한 시즌 개막전에서 패하면서 패트리어츠는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주전 러닝백을 잃은 바이킹스와 리그 최약체인 레이더스를 상대로 패트리어츠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많은 약점을 노출시켰다. 급기야 4주차 경기에서 치프스에게 14 대 41로 참패를 당한 패트리어츠는 더 이상 예전의 패트리어츠가 아니며 브래디의 시대는 끝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5주차 경기부터 패트리어츠는 경기력이 안정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패트리어츠는 시즌 전반기에 주전 러닝백 스티븐 리들리와 인사이드 라인배커 제라드 메이요를

부상으로 잃으면서 큰 전력 손실을 입게 되었다.

시즌 후반기

패트리어츠는 5주차 경기부터 내리 7연승을 달리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특히 패커스에게 패하기 전까지 상대했던 4팀은 모두 각 지구에서 1위를 달리던 팀들이었다. 패트리어츠는 포스트 시즌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는 팀들을 압도적으로 물리치며 플레이오프에 대한 전망을 밝게 했다.

패트리어츠는 12승 4패라는 좋은 성적으로 정규시즌을 마쳤다. 패트리어츠는 지구 1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하였으며, AFC에서 1번 시드를 받아 플레이오프 첫 주에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포스트시즌

패트리어츠는 플레이오프 첫 상대인 레이븐스를 상대로 14점 차이를 두 번이나 역전하는 저력을 보였다. 특히 창의적인 공격 플레이로 강력한 레이븐스의 수비를 혼란에 빠뜨렸다. 두 번째 경기에서는 신예 스타 쿼터백 앤드류 러키 이끄는 콜츠를 상대로 45 대 7 대승을 거두었다.

애리조나에서 펼쳐진 49회 수퍼볼에서 패트리어츠는 NFL 역사상 처음으로 4쿼터에 10점 차이를 뒤집으며 우승을 차지했다. 쿼터백 브래디는 통산 세 번째 수퍼볼 MVP에 선정되어 최고 쿼터백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jsi@bostonkorea.com

정철화 프로의 골프 이야기 272

맛있는 김치 맛있는 골프



글쓴이: 정철화, Ph.D.
978-726-6979
jungc811@hotmail.com
Stow Acres Country Club
58 Randall Rd. Stow, MA 01775

우리집의 자랑거리가 하나 있다. 맛있는 김치다. 워낙 먹성이 좋기도 하지만 김치가 워낙 맛있기에 다른 반찬 하나 없어도 김치 하나로 밥 한그릇 푹딱 해칠 수 있다. 맛있는 김치 덕에 김치로 만드는 김치찌개나 김치 볶음밥과 같은 다른 음식들도 덩달아 맛있을 수밖에 없다. 이토록 맛있는 김치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아내가 참 자랑스럽다.

아내의 김치 만드는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고 지난달부터 실습에 들어갔다. 김치 만드는 초보자의 입장에서 김치 만들기의 과정은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배추를 준비하는 과정, 둘째로 배추 속에 넣을 양념장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준비된 배추에 양념장을 넣는 과정이다.

우선 지난달에는 배추를 준비하는 과정을

배웠다. 배추를 잘라서 물을 문힌 후 한겹 한겹 사이에 굵은 소금을 넣고 커다란 통에 차곡차곡 쌓은 후 적당한 양의 소금농도를 가진 소금물을 부어서 12시간 정도 절인 후에 물로 두 번 씻고 난후 배추의 물기를 빼는 과정이다. 보통 한 박스에 배추가 10개 정도 들어 있고, 배추 하나를 4등분 하기 때문에 40개 정도가 나온다. 뻣뻣하던 배춧잎과 줄기가 적당히 절여져서 부드러워지고 적당한 소금기를 지니고 있으면 좋다고 한다. 배추를 절이는데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던 것이 배춧잎 하나하나를 들추고 그속에 소금을 넣는 것이었다. 단순하게 반복되는 작업이어서 사실 재미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아내가 하는 말이 여기서 제대로 성의 있게 소금을 넣어주지 않으면 배추가 제대로 절여지지 않아서 김치가 맛이 없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재미는 하나도 없지만 꼼꼼하게 제대로 한잎 한잎 들추어서 소금을 발라냈다. 그 결과 아내가 혼자 했을 때와 같은 수준의 맛을 가진 김치를 만들 수 있었다.

어제와 오늘은 배추 절이는 과정, 양념장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절인 배추에 양념장을 넣는 과정 모두를 아내의 감독하에 혼자서 해냈다. 배추에 양념장을 넣는 과정 역시 절이는

과정과 똑같이 배춧잎 하나하나 사이에 양념장을 넣는 것이 단순한 것을 반복하는 별로 재미없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아내가 하는 말이 있다. 한잎 한잎 제대로 넣어주지 않으면 역시 김치맛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단순 반복으로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설레는 마음으로 했다. 예측되고 기대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맛깔진 김치맛이다.

골프에도 김치맛과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설사 재미없는 단순히 반복되는 연습이라

는 과정이 없이는 맛깔진 골프의 맛을 만들어 내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물론 하나의 단서는 있다. 무조건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 비교 할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차이가 난다. 알고 반복하는 것, 그것이 골프의 맛을 내는 비결이다.



Hanca Education Center
한카교육원 교육프로그램

* 한카교육원은 간이식당과 대형 스크린을 갖춘 멀티미디어룸을 포함
9 개의 강의실을 운영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캐나다 최고의 교육도시
문화중심 도시 몬트리올!!
세계 최대 이중언어 도시
몬트리올!!


북미의 파리, 몬트리올에서 불어공부하자!

몬트리올 유학은

- 불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 환경에서 수준높은 교육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한카교육원의 유학프로그램은 북미한인언론인협회(KAFA)에서 인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몬트리올 유학 프로그램의 특징



초중고 불어학교 / 영어학교 조기유학

- 불어학교 / 영어학교 또는 영.불어 통합학교 중 선택
- 숙소비, 학원, 학비, 홈스테이 비용 포함 관리 유학 연간 \$39,000(CAD)

불어/영어 단기유학

- 현지 공립학교에서 교육

tolerant friendly

불어 & 영어 여름 캠프 2015 June

- 몬트리올의 여름을 즐기며 배우는 불어









성인 불어/영어 직업교육(이후 이민가능)


- 부모 유학비자로 자녀의 공립학교 무상 교육가능(EMS 교육청)

성인 불어/영어 연수

- 불어 교육청 / Language school / etc.

McGill University 입학준비반


- 세계 10대 대학, 저렴한 생활비와 학비





TALK 카톡으로 빠르게 상담하세요
ID : hanca3333

전통의 힘!! 새로운 힘!! 한카교육원에서는 전통과 청신함으로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카유학원에서는 조기유학, 영어, 불어, 수학, TEFoQ 등 최고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33 Boul. Cavendish Suite 100, Montréal Québec, Canada H4B 2M5
한카 교육원 http://hancastudy.com



CÉH École de Langues/Mathématiques
HEC Language/Mathematic school
tel: 1.514. 600.3444
070.4498.1106
hancastudy@gmail.com



NEWSTAR BOSTON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매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의 매출실적 / 50여 가지 서비스 / 한국 및 캐나다 자회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4,800
Sharon, MA
3 Beds, 2.5 Baths, 1872sf.
잘 관리된 좋은 구조의 집
#1 Best Place to Live in US
이현주 401-935-3397



\$799,900
Woburn, MA
5 Beds, 4 Baths, 4238 sf.
Terrific spacious home for Large family
Anna Jung 617-780-1675



\$650,000
Framingham, MA
4 Beds, 2.5 Baths, 2920 sf.
조용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Near shopping on #9
Jay Lee 781-654-5281



\$659,000
Andover, MA
3 Beds, 2.5 Baths, 2900 sf.
안전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
밝고 좋은 구조의 집
Janice Lee 978-806-6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9,9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215 sf.
넓은 공간, 아름다운 실내 구조
살기 좋고 우수한 학군
이현주 401-935-3397



\$725,000
Brookline, MA
2 Beds, 2 Baths, 1523 sf.
Near BU, Coolidge Corner
Sunny 2 bedrooms
Jason Jeon 617-642-5670



\$699,000
Lexington, MA
5 beds, 2 baths, 2021 sf.
Endless possibilities to develop
Many acres of conservation
OT Kim 617-620-8242



\$359,000
Billerica, MA
3 beds, 2.5 baths, 2694 sf.
Near Commuter Rail
Nice neighborhood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4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429,900
Belmont, MA
3 Beds, 1 Bath, 1245 sf.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Anna Jung 617-780-1675



\$239,000
Acton, MA
3 Beds, 2.5 Baths, 1594 sf.
Updated kitchen, floors
Gina Choi 978-866-3248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프랜차이즈
300개 점포 소유 회사
S.J Park 617-304-7001

아파트 건물 투자
아파트 건물
학생 렌트 건물
Cambridge, Boston
S. J Park 617-304-7001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Drop off Store
찾기 힘든 Drop off store
좋은 위치, 고정적인 손님
일년 매출 \$300K 이상
제이슨 전 617-642-5670

Full Plant Cleaner
저렴한 렌트,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제이슨 전 617-642-5670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미국 부동산 협회 (NAR) / 2014년 최우수 고객 서비스 제공 업체 (NAR)
국제 부동산 협회 (IFMA) / 2014년 최우수 고객 서비스 제공 업체 (IFMA)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제이슨 전
617-642-5670



헤이즐 승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Janice Lee
978-806-6023



나원태
617-642-3156



Steve Yoo
617-386-3451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Restaurant  \$550,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Cleaner  \$180,000 Bedford, MA Established in 1989 Great potential to grow Kwang O. Kim 617-792-8615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789,900 Brookline, MA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Beauty Service  \$100,000 Newton, MA 비즈니스에 좋은 위치 Kwang O. Kim 617-792-8615	Full Plant Cleaner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아파트, 콘도 단지 주변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179,000 Nashua, NH One of the reputable Asian cuisines in Nashua, NH Jason Jeon 617-642-5670	Deli  \$250,000 Boston, MA Boston downtown 중심에 위치 Great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Coin Laundry  \$94,900 Brookline, MA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Sushi bar and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Dry Cleaner  \$25,000 Norwood, MA 40 lbs washing machine located in strip mall Anna Jung 617-780-1675	Jewelry Business  \$74,990 Natick, MA 좋은 위치,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New owner를 위한 training 제공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Full Plant Cleaner \$100,000 Weymouth, MA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Convenience Store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병원 건물 렌트 Worcester 3000 SF.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200,000 Middleton, MA Middlet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커머셜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럴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비즈니스 빈자리 S.J Park 617-304-7001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오빠스시 OPPA SHUSHI
www.oppasushi.com

사시미:
상징적인 생어와 훈마구로 참치, 방어, 흰푸나, 레드스네이크, 생굴과 생우니, 한치회무침과 배운탕까지

스시와 롤:
상징적인 훈마구로 참치, 스크램블, 생선, 방어, 참치, 새우, 오징어 등등

**사시미 롤코스
김밥**

안녕하세요 교민여러분,
업소문에 위치한
최의 오빠스시에서
상징적이고 맛있는 사시미와
스시, 롤과 김밥을
365일 캐더링
예약 판매합니다.
각종모임에 애용바랍니다.

617-202-3808 •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www.Stevesuh.com

617-877-3435

Vol 11, No.6 February 6 2015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상큼한재료를이용한홍콩식디저트

스윗 킹덤(Sweet Kingdom)

업소탐방 273

스윗 킹덤

145 Harvard Avenue, Allston, MA 02134
617-787-1262

연리바 8 뉴스가 100% (HBO Play)로 시청 가능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 하러 언제든 연락주세요.

Welcome, **tbo** 한국 방송 3사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TV는 사랑을 싣고

발렌타인데이 특별 할인!

무제한 시청 월 \$29.99
2월 28일까지(2년 약정시)

문의 및 예약
보스톤코리아 TV 센터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OCN Olive OCN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1월 초, 하버드 예비뉴에 새로운 디저트 가게가 문을 열었다. 홍콩식 디저트를 선보이는 스윗 킹덤(Sweet Kingdom)은 한국인에게는 약간 생소할 수 있는 저 칼로리 디저트의 천국이다.

과일을 주로 사용하는 이곳 디저트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아무래도 '덜 단맛'이다. 설탕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과일의 단 맛으로만 맛을 내기 때문에 일부 미국 손님들은 "더 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는 것이 스윗 킹덤 조이 매니저의 말이다.

그녀는 "미국 디저트는 너무 달아서 홍콩 사람 내 입맛에는 이 정도 달기가 딱 적절하다"고 한다. 직접 맛을 보니 과연 너무 달지도 않고 상큼하게 즐기기에 딱이다.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여성들에게는 최적의 디저트 메뉴가 될 듯하다.

가장 인기 있는 메뉴로는 망고 킹덤(Mango Kingdom)과 망고 팬케이크(Mango Pancake)다. 망고 킹덤은 망고맛 아이스크림과 망고, 젤리 등이 망고 소스에 담겨 나오는 그야말로 '망고 천국'이다. 망고 팬케이크는 얇고 부드러운 크레페에 크림과 두툼한 망고 조각이 들어가 있다.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토디 팜 믹스드(Toddy Palm Mixed)다. 수박, 메론, 망고, 드래곤 프рут, 토디 팜 등의 과일이 망고 소스에 담겨 나온다. 이외에도 호불호가 갈리는 두리안 메뉴, 하트 모양의 레드빈 푸딩, 허브 일종의 달콤쌉싸름한 그라스 젤리(Grass Jelly) 등이 있다.

개인적으로 스윗 킹덤의 가장 독특한 메뉴로는 파파야가 들어간 설함 & 트레멜라 차(Hasma & Tremella with Papaya)다. 설함은 개구리 지방덩어리로 영어로는 해스마라고도 불린다. 트레멜라라는 흰 곰팡이 버섯류로 설함과 함께 중국 남부 및 홍콩에서 자주 쓰이는 식재료라고 한다. 실제로 아무 맛이 나지는 않지만 피부와 여성의 몸에 좋으니 건강식이다 생각하고 꿀꺽 마셨다.

실제로 홍콩에서는 일주일 두 번 정도 이 차를 마시면 피부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한다. 조이 매니저는 "굉장히 자주 마시는 편이다. 35살의 피부가 아니지 않나"며 동안 피부를 자랑하며 웃었다.

"주로 아는 사람이 먹는다"는 스윗 킹덤의 조이 매니저는 "아무래도 중국이나 홍콩 손님들이 가게를 많이 찾는다"고 전했다. 생소할 수 있는 홍콩식 디저트를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알리고 싶

는 것이 조이 매니저의 말이다.

하버드 예비뉴에서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는 손님들을 타겟으로 하는 스윗 킹덤은 새벽까지 문을 연다. 영업시간은 평일 오후 2시부터 새벽 2시까지며 주말은 오후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다.

dyoo9146@bostonkorea.com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한 가족 같은 사랑공동체에서 참 기쁨과 평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겠습니까?

주일예배: 오후 12:30 담임목사: 임웅순

보스톤 사랑의교회
www.bostonvechurch.com
1 Church St., Wakefield, MA 01880 (617)285-8870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617.536.8888

myorienttravel@gmail.com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간접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지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경찰서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헬퍼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결혼자정신요양회	978-407-7554
국제결혼자정신요양회(내)	603-889-8201
뉴잉글랜드공공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연맹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617-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동맹)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민기술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안인협회	508-826-5270
이탈리아계동맹협회	978-514-3399
한인학교동맹회	781-424-5269
FBI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인협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산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나지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당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RHS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일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산성교회	617-997-6165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산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8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여우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씨 뱀교회	978-274-2369
엠펙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엠펙스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타 교회	508-799-4488
워싱턴시온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감리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초시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김민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미사이드 청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정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 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 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 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터플워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분수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태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413-4560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열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272-7886
헤어 스킨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4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Bl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성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지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가유가	617-566-8888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사무라이	617-236-7672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케어셀러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치과	978-655-1583
신영록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	617-871-1482
퀸지스아치과	617-471-2184
퍼스트코이스덴탈그룹	781-894-1127
프록스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89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란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랜타,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MANAGER/SUPERVISOR AT
DRY CLEANING FACILITY**

Direct day-to-day assembly, delivery, and shipping department at a dry cleaning facility. Coordinate with Cleaning Department. LOCATION Brockton Mass. EXPERIENCE in Dry Cleaning business, good English, and references required. SALARY: Start \$13/hour for first 90 days. Negotiable, afterward based on demonstrated abilities. TO APPLY Fax application and resume to (888) 790-4171.

월슬리 7달 아기 돌봐주실 분을 찾습니다. 주5일(월-금), 급여협상가능 T. 781-492-8766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나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배드포드지역
딜리버리하실 분 구합니다.
T. 781-275-7600, C. 781-801-6896

BU근처 가유가에서 캐시어,
딜리버리 드라이버, 웨이추레스 구함.
T. 781-888-8287

Walpole
세탁소 카운터 구함.
T. 781-771-7069

산모도우미 찾으시는 분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자격증 있음.
T. 339-227-9683

Looking Korean interpreter

Looking for an experienced certified Korean interpreter. Certification should be from a qualified program, would prefer experience but will consider new certificate holder. Must be able to interpret in a variety of community settings.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you can set your own hours and earn an above average hourly wage. Please send your resume to susan_kelliher@ccab.org or call 617-464-8122. Immediate openings.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일식당 매매 15K - 18K

한식 겸하면 최고 조건, 독점지역 저렴한렌트, 알차고 꾸준한 매상 두차례 영주권 내준 식당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TEL 603-557-3123

세탁소판매, 스프링필드 근방
공장과 Drop, 연매상 \$700,000
T. 413-244-8347

B라인 뽕곡, 2베드룸 하우스 \$2300
룸렌트 유틸 미포함.
T. 781-888-8287

FIXALL

바이러스 치료, 데이터 백업/복구
맥OS/윈도우/리눅스 설치/복구
각종 컴퓨터 수리 및 업그레이드
홈 네트워크 설치
TEL 617-710-4952

N[매 매]
노래방매매(조지아 애틀랜타)
현재 성업중이고 매상 좋고 단골손님 많은곳. 여도우미 있음, 룸 8개, 최고급 인테리어 (여도우미 두고 노래방 비즈니스 하시길 원하시는분 좋은 기회)
T. 770-283-9687

N[매 매]
테네시에 위치한 13년된 세탁소 월마트 쇼핑몰에 위치함
매매가 \$ 320,000, 월매상 \$ 30,000
기계가 대부분 교체되어 새장비임
렌트비 월 \$ 2,500 , 면적 1,600sf
T. 931-241-0451

N[매 매]
사우스 케롤라이나
지압집 급매
가격 \$35,000
T. 678-939-5153

N[매 매]
당도가 높은 콩, 간수 뽕 천일염, 인디안 스프링 약수를 사용한 전통식 된장, 간장을 판매합니다.
지방 한인 마켓이나 단체 주문시 도매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T. 678-764-0331, 678-656-9977

N[구인]
바이널사이딩 메케닉(준메케닉) 6개월 Job, 작업장소는 플로리다 임
T. 770-871-9049

N[구인]
남자 배우자 원합니다
저는 회사원으로 근무중이고 배우자는 50대 후반에서 60대까지 이고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사는곳으로 이주 하실수 있는 분은 전화 주세요
T. 904-753-7600

N[구인]
메케닉 구함
사이딩 00명 (헬퍼,메케닉,쿠루포함)
익스테리아+인테리어 기능공우대
숙소제공, 지역(미네소타,노스다코다)
T. 651-329-3307

N[구인]
마사지사 구함
숙식제공, 수입보장
안전한곳
T. 406-259-6211

N[구인]
샌안토니오 초가집에서
일하실 여성분 구합니다
숙식제공되고 라이드 됩니다
T. 210-803-5194

N[구인]
S룸살롱 아가씨, 마담,웨이터 구함
수입보장, 수준높은 실리코넬리
산호세 지역(주급+TIP 월 7천-1만)
T. 408-990-5120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i.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al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rates effective as of 5/1/14.



'힐러' 지창욱, 대륙까지 접수!

웨이보 검색 韓 배우 1위

(서울=뉴스1스포츠) 이경남 기자 = 배우 지창욱이 대륙을 접수했다.

지창욱은 최근 중국 대형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에서 남자 연예인 인기 순위 1위를 석권했다. 전체 배우 순위로는 10위를 기록했으며 전체 연예인 검색 순위로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어 중국 내 연예인을 비롯

한 쟁쟁한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중국의 소후닷컴을 통해 방영되고 있는 '힐러'는 중국내에서도 인기몰이에 한창인 만큼 지창욱을 향한 스포트라이트 역시 뜨거울 수밖에 없다. 또한 지창욱은 최근 중국 대표적인 SNS인 웨이보를 개설, 본격적으로 중화권 팬들과 소통에 나서며 한류를 이끄는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를 것을 기대케 하고 있다.

배우 지창욱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내는 물론 중국 시장에서도 섭외

에 관한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활동 영역을 넓혀가며 국위 선양할 수 있는 좋은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지창욱을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한편 지창욱이 열연을 펼치고 있는 '힐러'는 정치나 사회 정의 같은 건 그저 재수 없는 단어로 생각하며 살던 청춘들이 부모세대가 남겨놓은 세상과 맞짱 뜨는 통쾌하고 발칙한 액션 로맨스로 매주 월, 화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lee1220@news1.kr

'킬미힐미' 지성, 7개 인격 특급 동공연기

(서울=뉴스1스포츠) 장아름 기자 = '킬미힐미' 지성이 깊은 눈빛 연기로 여성 시청자들을 설레게 했다.

지난 4일 밤 10시 방송된 MBC 수목드라마 '킬미 힐미'(극본 진수완 / 연출 김진만 김대진) 9회에서는 전 인격을 드러내는 차도현(지성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와 함께 차도현은 정신과전문의 오리진(황정음 분)을 전문 비서로 채용하며 본격 로맨스의 시작을 알리는가 하면, 오리온(박서준 분)을 통해 과거의 잊어버린 기억의 실마리를 듣게 되는 등의 모습으로 극적인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이 과정에서 지성은 인격마다 신들린 연기력과 매번 다른 눈빛 연기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지성이 연기한 차도현의 여러 인격은 서로 다른 매력으로 여성 시청자들을 사로잡았고, 여성 시청자들은 차도현의 7개 인격을 두고 이상형 투표를 진행해 드라마의 폭발적인 인기를 실감케 했다.

특히 지성이 시청자를 사로잡은



또 다른 비결은 동공 연기다. 그는 흰 눈동자와 검은 눈동자의 명확한 경계로 이른바 자연 '동공 미남'임을 입증했다. 지성의 동공은 자살지원자 요섭의 아련함을 극대화시켰고, 신세기의 강렬함을 돋보이게 했

다. 무엇보다 차도현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초롱초롱한 눈망울은 만화 주인공을 연상케 했다.

지성의 열연이 돋보이는 '킬미 힐미' 10회는 5일 밤 10시 방송된다.

aluem_chang@news1.kr

EXID 하니에게 직캠이란?

"동아줄, 우리를 살렸다"

(서울=뉴스1스포츠) 이경남 기자 = 걸그룹 EXID 하니가 직캠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냈다.

EXID 하니는 4일 밤 8시55분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이하 한밤)에서 자신에게 직캠이란 어떤 존재냐는 물음에 "동아줄"이라고 답했다.

하니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위아래' 앨범이 나왔다. '직캠'이 우리를 살렸다"고 말했다.

'위아래'는 지난해 8월 발표된 곡으

로 색소폰의 강렬한 라인과 따라 부르기 쉬운 후크(HOOK)이 인상적이다. 활동 당시 큰 인기를 끌지 못했으나, 최근 일명 '하니 직캠'이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다시 주목을 받았다. 음악 프로그램 상위권 진입은 물론, 음원 사이트 1위를 차지하는 등 유례 없는 차트 역주행을 보였다.

정아는 '위아래' 역주행 열풍 후 달라진 점에 대해 "예전에는 식비가 6000원 정도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애교 부리면 더 비싼 것을 먹을 수 있다. 또 이제는 디저트도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lee1220@news1.kr



이하니 식단, 셀러리부터 석류까지

"밥은 안 먹는다"

(서울=뉴스1) 온라인뉴스팀 = 배우 이하니가 자신의 식단을 공개해 누리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한밤의 TV연예'에 출연한 이하니는 "난 잘 찌는 편이다. 그래서 항상 조절한다고 생각하면 유지가 된다. 근데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으면 살이 찌는 스타일이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요새 셀러리를 정말 많이 먹는다. 다시마는 초장을 안 찍어 먹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에서 공개된 건강미인 이하니의 실제 식단은 셀러리, 초장 없는 다시마, 두부, 견과류, 석류 등 저칼로리 음식이 주를 이뤘다.

식단을 본 김일중 아나운서가 "밥은 안 먹느냐"고 질문하자 이하니는 "밥은 안 먹는다"고 대답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하니는 지난 4일 첫 방송된 온스타일 예능프로그램 '갯잇부터 2015'에 출연해 "난 다이어트할 때 15일까지 굶어봤다"고 고백했다.

이어 그는 "대학교 때 예뻐지고 싶어서 무작정 굶기 시작했다. 지금 같으면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할텐데

그땐 노하우가 없었다. 가야금 연습을 하는데 (같이 굶던) 친구가 '하니야 나 줄이 안 보여'라고 해서 열른 가서 두유를 먹으니 좀 괜찮아지더라"고 과거를 회상했다.

또한 "예전엔 그런 무식한 방법을 정말 많이 해봤다. 20대 초반까지는 약으로 강으로 버틴다. 하지만 20대 후반만 돼도 굶는 게 정말 힘들다"고 다이어트 고충을 토로했다.

kijez875@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5년 1월 26일 ~ 2월 1일

1위
KBS2 주말연속극
가족끼리 왜 이래
35.1%



2위 MBC 주말특별기획 전설의 마녀 31.4%



3위 KBS1 일일연속극 당신만이내사랑 26.5%

4	MBC	주말드라마(장미빛연인들)	24.8%
5	MBC	MBC스포츠축구(아시안컵한국:호주)	19.0%
6	KBS1	KBS9시뉴스	18.7%
7	KBS2	일일드라마(달콤한비밀)	17.9%
8	SBS	SBS스포츠축구(아시안컵한국:호주)	16.9%
9	KBS2	해피선데이	16.4%
10	KBS2	KBS스포츠축구(아시안컵한국:이라크)	16.1%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또 운다 또	다비치
02 화	매드클라운
03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정승환, 박윤하
04 목소리	노을
05 위아래	EXID
06 팔베개	소유, 기리보이
07 LUV	Apink
08 사랑에 빠지고 싶다	정승환
09 광화문에서	규현
10 행복해서 미안해	다비치

숫자 퍼즐 (Sudoku)

2			8			6	1
3			4		5	9	
9							
8			7			3	
1	7				8		5
	4		2				9
							3
	9	3	8				4
5	8			7			2

2월 8일 - 2월 14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두루두루 잘 살피면서</p> <p>● 운수: 세살살이가 나 혼자만 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루두루 주변을 잘 살피면서 가야 하겠습니다. ● 금전: 당장 내 손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훗날에 얻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 애정: 상대가 원하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정말 상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9, 13일 길일, 8, 11일 주의.</p>	<p>소띠 일을 분담해야</p> <p>● 운수: 혼자서 다 하려고 하다가는 자신의 몸만 축이 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거나 일을 분담해야 합니다. ● 금전: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들쭉날쭉 합니다. 많이 들어올 때 잘 챙겨두어야 하겠습니다. ● 애정: 믿음이라는 것은 한 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믿어주고 어디까지 의심을 해야 하는지 아직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0, 14일 길일, 9, 12일 주의.</p>	<p>범띠 지출을 신경 써서</p> <p>● 운수: 정작 중요한 것은 놔두고 엉뚱하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 금전: 들어오는 것이 있지만 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지출을 신경 써서 하지 않으면 남는 것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 애정: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낯설게 느껴집니다. 연인이나 부부간에 성격차이로 다를 수 있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8, 11일 길일, 10, 13일 주의.</p>
<p>토끼띠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새처럼</p> <p>● 운수: 그 어느 때보다도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기회라 생각되면 꼭 잡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금전: 거두어들이는 수확의 시기입니다. 풍성한 가을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새처럼 보는 것만으로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 애정: 혼자 끙끙대면서 고민하지 말고 대화를 나누어보세요. 함께 의논할수록 좋은 방법이 생길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9, 12일 길일, 11, 14일 주의.</p>	<p>용띠 해결책을 찾고</p> <p>● 운수: 한숨을 돌리게 되니 심적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 날을 고민하게 하던 일이 드디어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 금전: 투자를 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왔습니다. 매매나 문서로 인한 이익을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 애정: 진정으로 사랑할만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가까이 있어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3, 14일 길일, 8, 12일 주의.</p>	<p>뱀띠 이리저리 계산하게</p> <p>● 운수: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표정을 하지 마세요. 안 좋은 인상을 주거나 나쁜 영향을 줄 뿐입니다. ● 금전: 금전문제로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정해진 돈에서 지출을 해야 하니 이리저리 계산하게 됩니다. ● 애정: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처음에는 평생 얽고 다니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들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뎠어지기 마련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1, 14일 길일, 10, 13일 주의.</p>
<p>말띠 기쁨을 주는</p> <p>● 운수: 음지에서 암자로 나간 것 같이 갑자기 자신의 주변이 환해집니다. 유익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귀담아 들어야 하겠습니다. ● 금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중요한 일은 지금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로 인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때입니다. ● 애정: 마음이 통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1, 12일 길일, 8, 14일 주의.</p>	<p>양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p> <p>● 운수: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기를 바라기 전에 우선 스스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서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아야 합니다. ● 금전: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곧바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얼마나 남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얻는 것이 크게 다를 것입니다. ● 애정: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8, 11일 길일, 12일 주의.</p>	<p>원숭이띠 말수를 줄여야</p> <p>● 운수: 접촉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직접 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 금전: 지금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수익과 직결되는 것이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애정: 말수를 줄여야 할 때입니다. 한 사람이 한 마디를 하면 다른 사람은 열 마디를 하니 자연히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9, 14일 길일, 8, 10일 주의.</p>
<p>닭띠 큰 것을 챙기도록</p> <p>● 운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을 두고 보기 힘들어서 고심하게 됩니다.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 금전: 적은 돈을 아끼려다가 큰돈을 쓰게 되는 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적은 것은 내어주고 큰 것을 챙기도록 하세요. ● 애정: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금방 탄로 날 수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9, 13일 길일, 8, 11일 주의.</p>	<p>개띠 일생일대의 기회가</p> <p>● 운수: 같이 일하자는 제의가 들어옵니다. 잘만 잡으면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금전: 수입이 증가하니 얼굴에 혈색이 돌 것입니다. 노력한 것만큼 얻는 것이 있으니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 애정: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주겠지 바라지 말고 먼저 주고자 하는 마음을 내면 더 큰 것을 받게 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8, 11일 길일, 9, 12일 주의.</p>	<p>돼지띠 충분히 만회할 기회가</p> <p>● 운수: 다소 좋지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충분히 만회할 기회가 곧 올 것입니다. ● 금전: 투자나 매매는 보류해야 합니다. 한푼 두푼 모으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한 순간인 것입니다. ● 애정: 진실을 알고 나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갔으면 모를까 이것저것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8, 12일 길일, 9, 10일 주의.</p>

장예원, 아나운서 vs 아이돌?

그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서울=뉴스1) 김진 인턴기자 = '아나테이너'. 아나운서와 엔터테이너의 합성어이다. 과거 정갈하고 단아한 이미지를 가진 아나운서들이 뉴스와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차지했다면, 넘치는 끼와 재능을 겸비한 아나테이너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까지 종횡무진한다. 과거의 아나운서들이 딱딱하고 차가운 지성미로 스스로를 무장했다면, 오늘날의 아나운서는 때론 훈수처럼, 옆집 언니오빠들처럼 인간미를 풍기는 '아나테이너'들이다.

이러한 아나테이너들 가운데 유난히 돋보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장예원(26) SBS 아나운서다. 장예원 아나운서가 프로그램에 떴다 하면 실시간으로 기사가 쏟아지고, 지

난해 말에는 국가대표 출신 수영선수 박태환과의 스캔들에 휩싸여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했다.

한동안 장예원 아나운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식지 않았고, 대중은 머지않아 그를 자주 볼 수 있게 됐다. SBS 'TV 동물농장' '풋볼 매거진 골!' 라디오 파워FM '장예원의 오늘 같은 밤' '한밤의 TV연예' 등 다수의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게된 것. 이밖에도 장예원 아나운서는 타 SBS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얼굴을 비추며 자주 이슈가 되었고,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2014 SBS '연예대상'에서는 개그맨 이국주, 조세호와 함께 아이돌 그룹 오렌지카라멜의 '까탈레나' 춤을 선보이며 화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 했던가. 일각에서 "SBS에 아나운서가 장예원 하나냐"라는 비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어 "아나운서가 아니라 아

이돌 같다"라는 비난도 이어졌다. 배성재 SBS 아나운서 역시 우려를 표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장예원 아나운서는 똑똑하고 열정 넘치는 친구인데, 요즘 회사가 띄워주려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혹시나 역효과가 날까 하는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soho0901@news1.kr



<비정상회담> 강용석,타일러와 영어토론

(서울=뉴스1) 온라인팀 = '비정상회담' 미국 대표 타일러가 강용석과 영어 토론을 펼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예능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는 강용석이 게스트로 출연해 G12와 함께 '유학과 이민'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방송에서 MC들은 "미국 하버드대에서 로스쿨을 다닌 강용석과 타일러가 영어로 토론을 해 보는 것이 어떨냐"고 제안했다.

곧바로 타일러는 "하버드를 언제 졸업했냐"라고 영어로 물었고, 강용석은 "2002년"이라고 단답으로 대답했다.

이를 들던 성시경은 단답 질문 말고 길게 할 수 있는 질문을 하라고 타일러에게 말했다고, 타일러는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속사포 질문을 던졌다.

타일러의 질문을 들던 강용석은 잘 듣는 게 싫더니 영혼이 빠져 나간 듯한 표정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강용석



은 타일러의 질문에 "여기까지만 하죠" 라고 대답했다.

이후 '비정상회담' MC들은 강용석에게 출연소감을 물었고, 강용석은 "외국에 와서 자리잡을 정도로 기가 센 분들이시다. 어디 가서 말로는 안 밀린다고 생각했는데, 12명한테 너무 밀려서 말을 못 했어요"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soho0901@news1.kr

김우중 부인 김준호 협박 "다 같이 죽게 될 거다"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김우중 부인 김준호 협박 문자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4일 밤 8시55분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이하 한밤)에서는 코코엔터테인먼트의 텃 빈 사무실에서 만난 김준호와의 단독 인터뷰가 그려졌다.

이날 김준호는 김우중 부인에게 협박문자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문자를 공개했다. 김우중 부인은 '본인이 살겠다고 김우중씨를 마스크를 통해 다시 한 번 죽이려 한다면 저 또한 다 같이 죽겠다는 걸로 알겠다. 그럼 우리는 정말로 다 같이 죽게 될 거다'는 문

자를 보냈다.

이어 공개된 문자에는 '김준호씨에게 부탁한다 처음 코코를 만들어 지난 3년간 동고동락하고 지내왔던 시간을 돌이켜보시고 어렵더라도 잘 정리되는 방향으로 진행시켜 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누리꾼들은 "김우중 부인 김준호 협박, 부부가 똑같구나", "김우중 부인 김준호 협박, 코코 개그맨들 힘내세요", "김우중 부인 김준호 협박, 지금이라도 사과하는 게 어떨지", "김우중 부인 김준호 협박,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달 24일 코코엔터테인먼트

트는 공동대표였던 김우중의 횡령으로 인한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폐업을 선언했다.

lee1220@news1.kr



사이, 성폭행 관련 악성 트윗글에...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가수 사이가 악성 트윗글에 쿨한 반응을 보였다.

최근 유튜브에는 미국의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 의 인기 코너 '악성 트윗글을 읽는 연예인들' 편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서는 '강남 스타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모은 사이가 등장했다. 사이는 자신의 '강남 스타일' 댄스를 비난하는 트윗글을 미소를 머금고 읽어 내려갔다.

사이는 "너를 성폭행해서 다시는 춤을 못추게 하겠다" 는 트윗글에 여유로운 웃음을 보이며 "하고 싶으면

해봐라. 그래도 난 계속 춤을 출 수 있다" 고 재치있게 답변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이다운 반응이네", "악플러들 진짜 다 처벌 받았으면", "사이, 엄청 당황했을 것 같은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kijez875@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공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i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론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관광 서비스 의료관광 'HURAM'

어느때부터 의료관광 (Medical Tourism)이란 단어를 매체들을 통하여 많이 들어 보았을 것이다.

의료관광(Medical Tourism)이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우수한 의료시설과 의료인력, 선진국 대비 저렴한 의료비의 경쟁력을 토대로 이명박정부때 고부가가치 창출 사업인 Global Healthcare 산업(의료관광/외국인 유치사업)을 선정하였고, 2009년 5월 1일 개정 의료법의 시행으로 의



료관광사업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발 맞추어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적정한 가격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준비를 해온 의료관광전문 유치업자인 HURAM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2008년부터 미국 달라스를 포함한 북미 8개 대

도시권 내 한인 및 여타 문화권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의료검진 서비스를 진행해 온 '휴람'은 2012년 2월 독립법인을 설립하며 북미를 포함한 유럽,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동남아시아 등 전세계 20여개 지역 담당자들의 운영능력을 합쳐 보다 안전하고 고객의 NEED를

충족시켜주는 종합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흔히들 유치업자라고 하면 브로커로 인식을 하여 HURAM을 통하여 의료관광을 진행하게 되면 중계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HURAM을 이용할 경우의 장점은 국내고객과 동일한 비용 또는 이벤트를 통한 저렴한 비용에 의료 이용할 수가 있고 또한 보호자 입장에서 고객의 NEED에 맞는 의료기관 선정, 퀄리티 및 비용대비 효율성 있는 병원을 선정해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자면, HURAM을 통한다면 의료의 퀄리티, 비용, 시간, 신뢰, 서비스 등에서 혜택을 제공 받을 수가 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의료관광은 타 지역에서 의료를 행해야 하므로 현지의 믿을 수 있는 의료경험이

많은 HURAM과 같은 의료관광 유치업자가 필요한 것이다.

휴람의 네트워크는 의료(종합수술, 검진, 성형, 여성성형, 남성성형,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피부관리등) + 관광(숙박, 여행, 기타등) 등이 이용 가능하다.

휴람 이용 절차

- 1) 1차 현지 접수 상담
- 2) 휴람 전문 상담자가 현지 직접 예약 및 상담 (전화/이메일/카톡등)
- 3) 전문 의료기관 연결
- 4) 사후 관리
- 5) 휴람 지역 운영자 불만사항 처리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을 통해 휴람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아보시고 경험해보시길 추천한다.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성형&전문치료&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나에게 도안이 왔다면?

비밀인 현상까지 개인에는 공개-개방을 위한 의료관광의 수를 다량 유입을 통해 의료 불만사항 해결이 가능

1. 한층향상된 (수술) 내시경 수술 (19000원) (수술) 내시경 수술 (19000원) (수술) 내시경 수술 (19000원)	25만원 → 20만원
2. 4000시술(수술) 내시경 수술 (19000원)	200만원 → 170만원
3. 비뇨기 수술 (수술) 내시경 수술 (19000원)	150만원 → 110만원

속(?) "좁은 여자가 아름답다"

질 이완, 불임, 조임, 한방에 해결

• 양귀비 수술 (수술) 내시경 1500 / 회복시간 14일	150만원
• 요실금 수술 (수술) 내시경 2000 / 회복시간 14일	150만원
• 이혼이 수술 (수술) 내시경 3000 / 회복시간 14일	300만원
• 그 외 수술 : 음핵수술 100만원, 소음순 수술 200~400만원	

남성 비뇨기 정밀검진 특별할인

내시경 + 밀가정제 + 생년기 + 조루 + 비뇨기암 검진

-95%까지 80만원

이윤수 & 조성완 비뇨기과

대한민국 1등 성형외과 특별할인

안면 리프팅 (수술) 내시경	안면 리프팅 (수술) 내시경	안면 리프팅 (수술) 내시경
-700만원	-600만원	-300만원
5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상안검	유선검	유선검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50만원	150만원	200만원

www.huramkorea.com

미국문의 보스톤코리아 617-583-2993

이메일 huramceo@huram.kr

한국문의 82.70.4141.4040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카카오톡 010.3469.4040 / ID: huramkorea



70 주기

윤동주 추모공연

2015년 2월
보스톤 | 뉴욕 | L.A. | 서울

전세계가 비인간적인 전쟁의 광기로 휩싸여 있던 2차 세계대전의 끝자락, 1945년 2월 16일, 조선독립과 민족문화유지라는 죄목으로 일본의 감옥에서 만 27세의 나이로 죽어간 윤동주. 그와 함께,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려 했던 이들을 기억하며 윤동주 추모공연을 엽니다.

보스톤

2015년 2월 14일(토) 7:30 P.M.

ECC Chapel (보스톤한인교회)
32 Harvard Street, Brookline, MA 02445

<http://eccckcb.org>

Hosted by
The Korean Church of Boston
Korean American Cultural Foundation(KACF)

뉴욕

2015년 2월 16일(월)
8:00 P.M.

뉴욕장로교회
43-23 37th Avenue
Long Island City, NY 11101

www.nypcfamily.com

L.A.

2015년 2월 22일(일)
7:00 P.M.

스페이스 공감
2960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 90010

www.facebook.com/spaceGGcafe

서울

2015년 2월 27일(금)
8:00 P.M.

북촌창우극장
종로구 원서동 158-2
Seoul, Korea 110-280

www.facebook.com/bcchangwoo



김성희 | 건반
보스톤/뉴욕



김효영 | 베이스
보스톤/뉴욕



박수진 | 보컬
보스톤/뉴욕



박주현 | 기타
서울



신희선 | 생황+피리
서울



이승연 | 베이스
L.A.



이유림 | 해금
서울



이은희 | 건반
L.A.



이지연 | 보컬
L.A./서울



정재니 | 해금
보스톤



차승현 | 드럼
보스톤/뉴욕



최보미 | 드럼
서울



최자연 | 건반
서울



한은준 | 기타
보스톤/뉴욕/L.A./서울



홍석호 | 드럼
L.A.



황두혁 | 베이스
서울

후원 : 보스톤 한인교회, 한미 문화 재단(KACF), 뉴욕장로교회,
아름다운 윤동주(이사장 이승중), 까마기 스튜디오

문의 : snowingmap@gmail.com | 201-835-8692 (미국) | 010-3238-8051 (한국)



아름다운 윤동주

윤동주의 지를 노래한다
눈오는 때에
www.snowingmap.com

신영의 **세상 스케치**

484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

'2015 산악회 신년 모임(01/17/2015)'이 있었다. 새해를 맞아 지난 한해를 돌아보며 함께 마주앉아 담소도 나누고 새해를 맞아 새로운 한해에 대한 계획과 다짐 등을 나누는 시간이다. 모두가 바쁘게 살다 보니 한 달에 두 번 있는 산행 외에는 자주 만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도 자연과 더불어 함께 호흡하며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번 신년회 모임은 아주 특별한 날이 되었다. 그것은 많은 노고를 야기지 않았던 초대회장인 김상호 회장이 제2대 회장인 현정원 회장에게 임기를 이임하는 날이며 새로운 여성 회장이 탄생하고 취임하는 날이기도 했다.

보스톤산악회가 2008년도에 처음 출발을 했다고 한다. 처음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시작되어 초대회장을 선출하고 그 모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안전산행을 위해 마음을 졸였을까. 그렇게 시작된 보산회(보스톤산악회)가 2015년을 맞아 7년째를 맞이하는 것이다. 물론 회장의 임기는 2년이지만, 처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초대회장이 연임하게 되어 6년이라는 세월을 보산회와 함께 혼신을 다해 이끌

고 있었다. 어쩌면 다른 산우에게 이임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떠나지도 못하고 묶여 있었는지도 모른다.

처음 산악회를 찾은 것이 2011년 5월 '봄꽃산행'이었으니 나 역시도 산악회와 인연이 닿은 지 만 4년이 되고 5년째를 맞는 것이다. 참으로 감회가 새롭다. 2015년 새해 보스톤산악회 신년회 날에 초대회장과 새로운 제2대 회장의 이임식에서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난다. 처음 산악회를 시작하고 이끌며 쉽지 않았을 일들이 4년을 산악회에 회원이 되어 내 눈으로 보고 겪으며 회장의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였을까 싶다. 산우들을 이끌고 함께 산을 오르내리는 내내 가슴 졸이며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우들을 챙겼던 초대회장의 모습은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산사람이었다.

6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단체를 이끌며 아무런 탈 없이 지금의 자리인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모습이다. 하지만 어찌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 곁에는 더불어 함께 오르내린 산우들이 있었고 말없이 내조를 야기지 않았던 아내가 있어 가능했으리라. 해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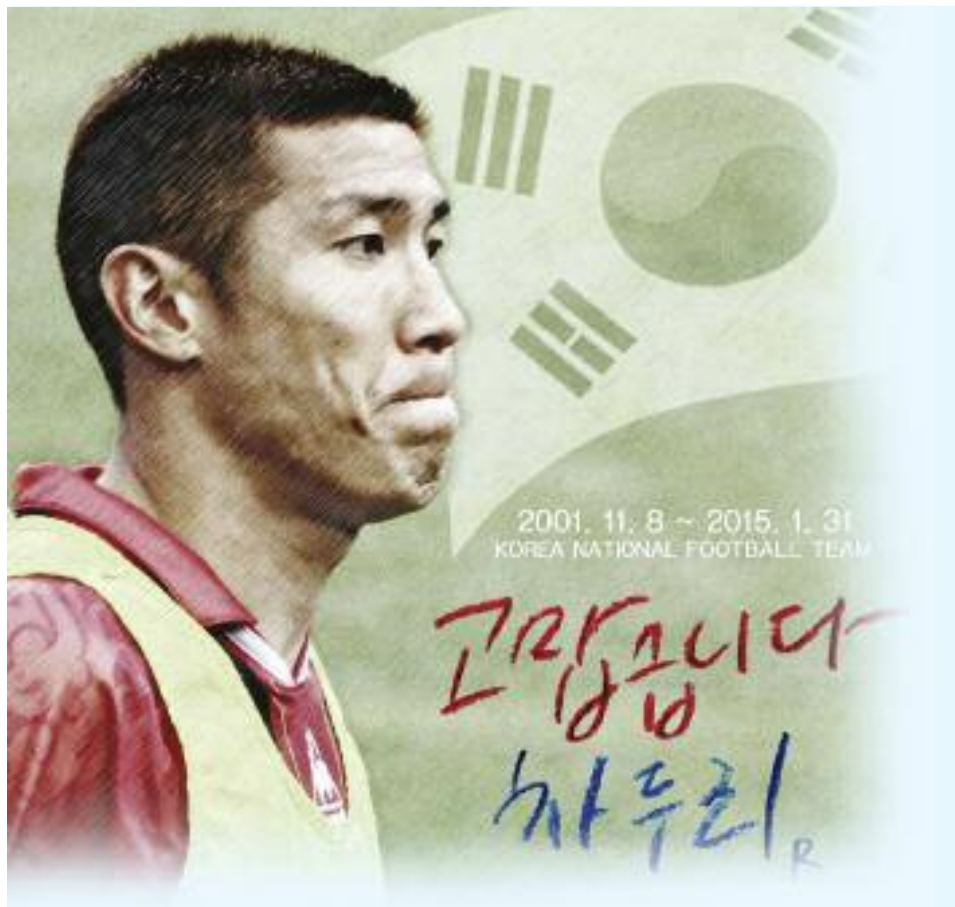
다 두 차례씩 '봄꽃산행'과 '단풍산행'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산우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썼던 수고의 손길이 되어 많은 이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 세상에 수고 없이 얻어지는 것이 그 하나나 있겠는가 말이다.

그 어느 단체 모임의 회장들보다 보스톤산악회 회장이라는 자리가 때로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 그것은 몸으로 마음으로 쉽 없이 걸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어찌 보면 수행과 같은 길인지도 모른다. 산을 오르내리는 것은 계절마다 쉬운 산행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산을 오르내리는 동안의 안전은 혼자만의 몫이 아니기에 모두가 그 안전을 위해 의무와 책임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까닭이다. 그 안전산행을 위해 산악회를 이끄는 회장은 밤잠을 못 자고 설치며 그렇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보스톤산악회 회장이 자랑스럽고 아름답다.

2015년 신년회를 시작으로 제2대 회장이 새로운 보스톤산악회의 출발을 선언했다. 시대의 흐름을 맞춰 흘러가는 것일까. 보스톤산악회 제2대 회장의 자리에 여성이 회장이 되었다. 회장의 새로운 각오와 당찬 결심이

결의 산우들에게 힘찬 기운을 불어넣어 준다. 그동안 산을 오르내리며 보았던 그분의 열심과 열정이 내 가슴마저도 출렁이게 한다. 그래, 무엇이든 흘러야 한다.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걸어가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가정의 주부로서 한 남자의 아내와 두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보스톤산악회 회장으로서 충분히 그 몫을 담당하리라 믿는다.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나누는 마음은 아주 특별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 어느 모임에서도 감히 느끼지 못하는 '말 없음의 소통'이랄까. 요즘처럼 서로 각박하고 나눔이 그리운 현대 사회에서 '산'이라는 그 하나를 두고 나눔이 시작되는 것이다. 산을 좋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나눔의 것이다. 산이 좋아 산을 오르고 그렇게 오르다 보니 곁에 사람이 있어 더욱 정겨운 것이 아닐까 싶다.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오르는 산사람들이 편안해 좋다.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이다. 신임 회장의 활기찬 발걸음을 따라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힘차게 올라보는 것이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아버지의 아들

김화욱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의 코에서는 콧김이 힘차게 뿜어나오듯 싶었다. 달리는 말이 허연 김을 뿜어내는 듯 말이다. 수비선수가 뒤를 따르고 있었다. 한두 발 쳐져 있었다. 뒤에서 반칙성 태클을 걸지 않는다면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나운 짐승이 달려드는 모습은 차라리 전룡이었고, 소름이 돋았다. 오한은 날씨 탓만은 아니었다. 맹수는 차범근이다.

차범근 아들도 국가대표 축구선수다. 차두리. 이름은 차범답게 지었는데, 이젠 어색하지 않다. 별명이 차미네이터라던가 전차戰車라던가. 터미네이터를 연상케 한다. 내가 일면 수긍했다. 차범근은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겐가. 시詩가 녹록하다.

세월이 나를 밀고와/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되고 보니 세월을 밀고 산 아버지의 길이/조금 보인다 (중략) 무덤의 죽은 풀/때마다 꺾어 드리진 못해도 내 어린 것의 손을 잡고 선산을 찾아/아버지의 길을 가끔 바라보다 내 어린 것도/ 어느 날엔

제 아이의 손을 잡고/아비의 길을 물끄러미 바라보리라. (장재선, 아버지의 길)

아들 차두리의 백드롭킥을 기억하시는가. 골로는 연결되지 않았는데, 폼은 너무 멋졌다. 내 입에서 나온 아~아 하는 탄성을 내가 들었다. 2002년 월드컵이었다. 아버지보다 아들은 더 강인해 보였고, 든든해 보였다. 하지만 아들이 말했다. “대한민국에서 차범근의 아들로 태어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 그런 그가 호주 아시아선수권 축구대회에서 맹활약했다. 8강전에서 오른쪽 라인을 치고 달리는 모습은 아버지보다 더 맹수스러웠던 거다. 폭풍 드리블은 어시스트로 골로 연결되었다.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다. 아쉽다 만 준우승이다. 그래도 장하다. 대~한민국, 짹짹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마태 11:27)

에스컬레이터를 뛰어 올라오고 있었다. 키 크지 않은 젊은이였다. 내 앞을 빠르게 스킵하고 지나갔다. 여중고생 대여섯이 뒤를 쫓았다. 할레벌떡하는 여학생 하나를 불러 세웠다. 대체 무슨 일이나고 물었다. 신경질 섞인 대답이 돌아왔다. '박지성도 몰라요!' . 유명한 축구선수 박지성도 모르는 화성에서 온 구 췌인류에 노망되었다. 시간이 남았길래, 공항 안을 어슬렁거리던 중이었다. 2002년 월드컵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꽤 오래전이다. 늦가을 전국축구선수권 대회였다. 11월초 동대문 축구장은 춥고 쌀렁하다. 회색의 차가운 시멘트 관중석에 앉아 있었다. 그가 오른쪽 사이드 라인을 타고 내려왔다. 공을 몰고 달려드는 모습에 내 눈이 집중되었다. 그가 입은 유니폼은 세로로 검은 줄 무늬가 쳐진 흰색 저지였다. 맹수가 철창鐵窓 우리를 뚫고 달려드는 줄 착각이 일었다. 그의 허벅지는 두툼고 단단해 보였다. 내 허리만큼 두꺼운데, 알통처럼 근육은 출렁였다. 그

보스톤코리아

KOREAN GUIDE & MAP

보스톤 가이드 앤 맵



이제 미국과 중국 고객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이 곧 출간됩니다. 이 가이드 앤 맵은 미국 및 중국 학생, 관광객 등을 타겟으로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등에 전격 배포될 예정입니다.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항

3만부를 내년 2월 발간하여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되는 가이드 앤 맵은 여러분의 매출을 한단계 높여드릴 것입니다. 보스톤코리아가 선정하는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의 베스트 업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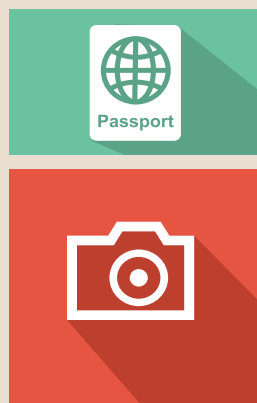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

이제는 더 많은 미국, 중국, 아시안 고객들을 한국 업소로 불러들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선택이 내년 매출을 좌우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항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형주 칼럼



김형주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플래그십 프로그램, 공공정책학(Master of Public Policy) 과정에 수학생.
 한국에서 방송기자로 9년.
 잠시 유엔 한국 대사관에서 임시 공보관으로 근무.
 언론과 정치, 경제 영역의 접점에서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찾고자 연구중

필터버블 (Filter Bubble)

“필터버블(Filter Bubble)” 한국말로 하면 “넌 방울 속에 갇혔어!” 정도 되겠다. 미국의 뉴미디어 전문가 엘리파리(Eli Pariser)가 정립한 개념이다. 이용자의 성향을 놀랄 만큼 정확하게 분석하는 요즘의 인터넷 검색서비스나 소셜미디어들이, 이용자가 좋아하는 내용만 자동으로 공급하고, 평소 흥미를 갖지 않는 내용은 배제하기 때문에, 자연히 이용자의 시야가 마치 방울 속에 갇힌 것처럼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 개념을 좀더 쉽게 이해하려면, 멀리서 찾을 것도 없다. 당장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정치적 글과 그에 대한 댓글, 그리고 트위터 친구 리스트만 보면 된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소위 Web 2.0 시대의 스마트 서비스에는 영특한 알고리즘이 탑재돼 있다. 이용자의 정치, 문화적 성향뿐 아니라 사교관계 범위를 분석해 차별화된 서비

스를 제공하는 알고리즘인데, 자주 лай크를 누르는 페북 친구의 댓글이 더 자주 검색되고, 자주 찾는 주제와 관련된 지식이 더 자주 결과로 나온다. (실례로 필자가 유학 오기 전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술집 주소가 먼저 나오기 일쑤였는데, 요즘은 위키피디아 내용이 첫머리에 나온다). 따라서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알고 싶어 하는 지식과 정보로만 둘러싸이게 된다. 평소 관심이 없거나 불편해하는 쪽의 정보는 알고리즘에 의해 친절히 차단된다.

이 “방울” 현상의 폐해를 보자. 진보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하는 새,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커뮤니티를 이루게 되고, 보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끼리 끼리끼리 모이게 된다. 끼리끼리 모이게 되니, 브레이크는 없고 액셀러레이터만 있어 자꾸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것.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베” 나 “*푸*” , 그리고 지난 대선

당일 뜬금 없이 승리를 자신하며 현대판 ‘시 일야방성대곡’ 을 울렸다 주변 친구들에게 열심히 사상검증을 당하고 있는 순진한 친구들이 이런 “방울” 이론을 잘 뒷받침한다. 진보와 보수의 대국적인 타협이 미덕이었던 미국에서도 소셜미디어가 보급된 이래, 유권자들과 정치인들이 점점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방울의 폐해다.

요즘은 듣기 싫더라도 “꼭 들어야 하는 소식” 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언론 매체들도 이런 “방울” 현상의 확산을 더욱 가속하고 있다.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등 전통의 파수꾼들이 허핑턴포스트나 버즈피드 같이 페이스북이나 구글 검색을 통해 세를 늘려가는 뉴미디어 경쟁자들과의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 점점 비슷한 알고리즘 검색방식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한국 언론사들도 뉴미디어 매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 알고리즘 시스템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방울의 홍수 속에서 믿을 건 우리 자신밖에 없다. 그런데 정신만 차리면 생존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리를 방울 속에 틀어박힌 소셜미디어의 ‘친구맺기’ 기능을 통해 통해 자신과 사상이나 철학, 취미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정보를 교류하면 된다 (돌이켜보면 이런 식으로 서로 다름을 배워 한 단계 앞으로 나가는 게 인류의 생존 지혜이기도 했다).

작은 방울 속에 갇힐 지, 아니면 방울 밖으로 탈출할 지는 당신에게 달렸다. 자신의 “방울” 속에서 철 지난 “흑백TV” 로만 세상을 보는 바보로 전락한 채 서서히 질식하기 보다는, 서로 다른 방울들을 한 데 모아 세상만한 거대한 방울 속에서 배움을 즐기며 사는 것이 어떨까.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67 태권도와 김치는 우리 고유의 것인가?(1)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해일亥日에 마늘밭에 후농제(後農祭)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면 삼국시대 당시에 마늘이 재배되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집단적으로 재배된 기록은 조선시대 중종, 즉 17세기 초반이다.

다음은 고추(胡椒)를 한번 살펴보자. 현재 우리가 먹는 고추의 역사는 17세기 초나 조금 전으로 본다.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 올 때는 ‘ 왜개자(倭子)’ 라고 하였으며 일본에서 들어왔다. 또 후일에 쓰인 조선개화사에 따르면 임진왜란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들어 왔지만, 우리 체질에 잘 맞아서 즐겨 먹으면서 결국 조선 후기 우리나라의 식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지금까지도 다양하게 식단에 올려지고 있다. 처음에는 고추 자체로 먹다가 17세기 후반에 고추가루를 만들어 먹었으며, 그 후 고추장을 담가서 먹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반면에 최근의 한국식품연구원 연구팀에 따르면 임진왜란 무렵에 전래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백년 전부터 존재했었다고 역사서 및 다수의 연구서를 통하여 입증/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고추를 뜻하는 ‘胡椒’의 기록이 세종실록, 성종실록등 선대의 역사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배추의 역사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고유음식이라고 자랑하는 통배추김치의 주재료인 결구배추(숙이 짝 찬 배추)는 18

세기 중반에 중국(화북지방)으로 부터 도입되었다. 하지만 재배조건이 맞지 않아 실패하였고 긴 세월동안 재배의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20세기 초반에 드디어 숙이 짝 찬 결구배추를 생산하였다. 김치의 주 재료의 도입을 볼 때 고추와 마늘을 비롯한 향신료를 넣고 현재와 같은 통배추김치의 역사는 100여년에 지나지 않는다. 고추가루에 잘 버무려지고 마늘냄새 흠뻑나는 통배추김치는 과연 우리의 고유음식인가?

물론 우리민족은 아주 오래 전부터 김치를 먹고 살아 왔다. 최초의 기록으로는 삼국지나 위지동이전에 ‘채소를 소금물에 담근다’ 는 의미의 침채(沈菜)를 담구었다. 그 침채가 구개음화로 인해 덩채에서 집채, 그리고 김치로 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그리고 고래로부터 담귀 먹은 침채의 재료는 무였으며 그냥 소금에 절인 찐지나 동치미가 주종이었다. 비록 현대 개념의 김치의 역사가 한세기 밖에 아니 되지만 세계적으로 유일한 우리의 김치가 탄생하기까지는 우리 민족이 먹어 왔던 ‘ 침채’ 가 있었기에 고추가 도입된 후, 처음에는 그것을 먹고 죽은 사람도 많았지만(102), 결국 우리 조상들이 향 좋고 빛깔 좋으며 맛갈스럽게 만들어 먹었다. 서양을 비롯하여 많은 타 민족들도 고추와 마늘이 있었고 채소를 소금에 절여 먹는 풍습이 있었지만, 아무도 우리

의 ‘김치’ 같은 음식을 만들지는 못했다. 한세기 조금 넘는 역사이지만 우리의 고유음식이라고 자부심을 갖지 않을 이유는 없다. 더욱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김치와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어 있다.(103)

102) 지봉유설(이수광)에 보면 “술집에서 그 맹렬한 맛을 이용하여 간혹 소주에 타서 팔고 있는데 이를 마신 자들 대부분이 죽었다.” 라고 기록 되어 있다.

103) 2013년12월에 유네스코(UNESCO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에 이름을 올려, 이제 김치와 김장문화는 인류전체를 위하여 보존되고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무형유산으로 되었다. 그런데 이런 기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김치시장은 상당 부분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다. 김치 수입물량의 99.9%는 중국산으로 매년 1억불어치가 수입되며 일본으로 수출하는 물량 때문에 수지현황은 2007년 3천5백만불의 적자를 보았고 매년 4백만 ~ 2천7백만불의 적자를 보고 있다. (2009년에는 2천3백만불 흑자) 그리고 2013년 8월 현재까지 중국으로 수출한 김치는 단 한 포기도 없다.

휴람 제휴 이벤트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성형&전문치료&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서울메디케어

서울메디케어는 연면적 1000평에 달하는 서부권역최고 최대수준의 대학병원급 건강검진센터입니다

서울메디케어 ·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검진 프로그램
(수면대장내시경 포함 시 10만원 추가)

종류	남자	여자
휴람기본	62만원 → 47만원	78만원 → 59만원
휴람정밀	120만원 → 91만원	136만원 → 103만원
휴람VVIP	304만원 → 228만원	329만원 → 240만원

SEOUL MEDICARE [검진시간 안내] 평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토요일: 오전 8시 ~ 오후 1시 · 점심시간: 오후 1시~2시

휴람 제휴 이벤트

루트모발 이식센터

6명의 모발이식 전문의료진
4개의 모발이식 전용수술실

휴람제휴 해외동포 '특별이벤트'

모발이식 5만원씩 할인
수술후 세정제 3만5천원 Free
생착률을 도와주는 EGF가 3만원 Free

절개	비용	비절개	비용	절개+비절개	비용
4000모	290만원	2000모	400만원	7000모	790만원
5000모	390만원	2500모	450만원	8000모	990만원
		3000모	500만원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새미치과 특별할인

새미의 이벤트

오스템 임플란트 150만원 → 120만원	무식제 라미네이트 80만원 → 60만원 <small>※ 부가치세별도</small>	오스템 미백 1회 20만원 +1회 제공 <small>※ 부가치세별도</small>
--------------------------------------	--	---

고국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임플란트 시술받으세요!

새미치과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웃음을 찾아드립니다.

대표원장 이두형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동부병원 치과 과장
- 원본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외래교수
-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정회원
- 대한구강보존학회 정회원

새미치과 임플란트 치아미백 치주치료 심미보철 예방치료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에띠끄 에스테틱 특별할인

Professional Skin Care System

에띠끄 에스테틱이 특별한 이유!
럭셔리인테리어와 고급관리
1:1 전문관리와 프라이빗 룸
동안 미스 스킨 케어 마사지

이태리 최상의 브랜드 사용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관리사

스페셜 힐링 케어 - Facial care + Healing back care - 120 min 19만원 → 15만원	스페셜 힐링 스칼프 케어 - Healing scalp care + Facial care - 120 min 20만원 → 16만원	스페셜 슬리밍 케어 - Facial care + Slimming leg care - 120 min 25만원 → 20만원
전신 홀리스틱 아로마 케어 - 아로마 전신케어 + 강력보습케어 32만원 → 26만원	전신 고주파 케어 - 고주파 전신케어 + 강력보습케어 38만원 → 30만원	나이가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아름답게 나이 드는 방법은 있다. 에띠끄만의 특별한 관리로 사년의 흐름을 잠시 멈춰보세요



미국문의 보스톤코리아 617-583-2993
이메일 huramceo@huram.kr

한국문의 82.70.4141.4040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카카오톡 010.3469.4040 / ID:huramkorea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당신을 사랑하기에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I need you because I love you.'

-좋은 습관은 행복으로 가는 직행선 II-

발렌타인 데이 일주일 남았다. 작년 발렌타인 데이가 가까워 올 때, K군이 물었다. “내가 심한 말을 해서 상처 받은 후, 나를 개 취급하는 옛 여친이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 그렇게 그녀에게 상처가 되는 줄을 몰랐습니다. 사과를 했지만 그녀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용서 받지 못할수록 그녀가 더 가치있게 느껴집니다. 사랑에 더 빠져듭니다. 그녀에게 발렌타인 데이에 꽃을 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질문과 동시, 이미 꽃을 보내는 예약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취소하려 했지만 발렌타인 하루 전이라, 취소하는 일이 더 힘이 든다고 했다.

발렌타인 데이날 장미꽃 부케가 그녀의 직장으로 배달되었다. 그는 하루종일 안절부절되어 일에 집중을 못 할 정도였다. 드디어 저녁 무렵, 옛 여친이 답을 보내왔다. “너 또 한번 내게 이따금 짓을 하면, 스토커로 고발해 버릴 거야!” 그는 비싼 돈 들여가며 진심을 다해 자기 마음을 표현하려 할 뿐이었는데, 죄인 취급당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하지만 괜스리 잘못 연락을 했다가 정말 스토커로 고발될 것 같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가끔씩 그녀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고 싶은 살의를 느낀다고 했다. 산산히 깨져버린 남자로서의 자존심과 함께, 다른 여자를 만나는 일이 무서워 진다고 했다. 비수같은 그녀의 ‘말 칼’에 심장이 찢린 그는 철철 흐르는 피를 움켜쥐며 한동안 몹시 괴로워 했다. 이 깊은 상처가 쉽게 아물지가 않아 다른 이들의 조그만한 거부적 반응에도 예민해졌고, 자기 비하에 빠져들곤 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낯선 장소를 운전하다 그녀 이름이 적힌 스트리트 명을 보고는 며칠을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는 멜리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녀의 매력에 빠져버렸다. 그녀의 섹시함, 미모, 대학원을 다니며 교직을 준비하고 있는 그녀의 야망은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를 황홀하게

했다. 그녀는 그와의 데이트를 거부하지 않았고, 만나면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라고 느끼게 해주곤 했다. 몇 번의 데이트 후,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 해 주었다. 옛 남친으로부터 배반을 당한 후, 심각한 관계로 빠지고 싶지 않다는 것과 자신이 친부모의 냉대(Neglect)로 DCF가 관여되었고, Foster Care 보호를 해주던 부부가 자신을 입양했음을 알려주었다.

그녀의 아픔을 들으며, 옛 남친 이야기에 질투심이 느껴졌다. 그는 질투심을 감추려 더욱 잘난척을 하며 말했다. “너의 아버지는 너를 버렸고, 너가 사랑한 옛 남친도 너를 버렸다. 너 상처를 가리려, 너 너무 강한 척 해. 하지만 너가 버림받은 상처를 극복하지 않는 한, 너는 그 누구도 진정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너도 진정으로 아무도 사랑 할 수 없을 거야.”

그 이야기를 들던 중, 도도한 그녀가 목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그에게 자기 집에서 떠날 것을 명령했다. 그 이후, 그녀는 그를 철저히 무시하기 시작했다. 한 번만 이야기를 하자고 해도 만나주지 않았다. 그럴수록 그는 그녀에게 집착이 되었다. 웬지 그녀가 더 매력적으로 보였고, 그의 로맨틱한 감정을 콘트롤하기 힘들어졌다. 발렌타인 데이가 가까이 오자, 더욱 힘이 들었다.

그는 진정 그녀를 사랑한 걸까? 에릭 프롬의 ‘The Art of Loving’을 통해, K군의 사랑을 알아보자. 에릭 프롬은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지식’이 있고, 배운 지식을 연습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랑은 지식과 노력 대신, 운명과 함께 우연한 기회에 경험하게 되는 누구나 ‘겪게 되는’ 즐거운 감정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문제를 ‘사랑할 줄 아는 능력(Faculty)’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는’ 문제로 생

각한다. 즉, ‘사랑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 지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사랑받으려면, 겉으로 보여지는 성공, 부와 권력을 가지면 되고, 학력이 좋고, 날씬하고, 섹시하고, 세련되고 예쁘면 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어쩌면, 성공이나 성형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배고픔’ 일 수 있다. 그만큼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둘째, 사랑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닌, ‘대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고, 사랑할 또는 사랑받을 올바른 대상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랑을 집이나 차를 사듯, 자신의 교환 가능성 범위에 있는 인간 상품을 찾고, 상호간의 ‘최고의 유리한 거래’를 나눌 대상을 찾아냈다고 느낄 때에만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애정 관계가 상품을 사고 팔듯 이루어지는 것이다.

셋째,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Being in love’와 처음 만나 감정에 의해 사랑에 빠지게 되는 ‘Falling in love’의 차이점을 몰라, ‘빠지는 사랑’만이 사랑이라 혼돈을 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지켜온 두 사람의 벽을 허물 만한 운명의 ‘올바른 대상’을 드디어 만났다고 느끼는 순간, 살면서 가장 황홀하고 격앙된 하나가 되는 기적적인 ‘합일의 순간’을 경험한다. 이 기적은 성적 매력과 성적 결합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 더욱 촉진된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형태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빠지는 사랑’의 대부분의 이유는 도취적인 합일(Symbiotic Union)을 사랑이라 믿기 때문이다. 도취적 사랑은 마약 중독과 같은 경향이 있다. 강렬하고 난폭하며 일시적이다. K군은 사실 너무나 외로웠고, 열등 의식이 많았다. 너무나 매력적인 사랑스런 ‘멜리’라는 대상은 자신의 이고를 팽창시켜 주었고, 자신이 치유받는 사랑에 빠져 들게 했

다. 격양된 자기 도취에 빠져버린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 했을 때, 아픔을 어루만져주지 않았다. 오히려, 상처가 나오려면 먼저 곪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베어져 있는 상처에 알코올을 뿌렸다. 멜리는 알코올이 너무 쓰라리고 아파서, 또한 이런 나쁜 남자에게 약점을 보인 게 분해 통곡을 했다. 그녀는 사랑의 문을 닫아버렸다.

에릭 프롬은 사랑은 수동적이라기 보다는 능동적이라고 말한다. 능동적으로 주는 사랑을 말한다. 준다는 것이 ‘포기’나 ‘희생’이 아니다. 자신의 기쁨, 자신의 관심, 자신의 이해, 자신의 지식, 자신의 유머, 자신의 슬픔-자기 자신 속에 살아 있는 것을 주는 것이다. 능동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한다. 보살핌(Care): 사랑은 사랑하고 있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관심이다. 이러한 적극적 관심이 없으면 사랑도 없다. 책임(Responsibility): 전적으로 자발적인 행동이다. 책임은 다른 인간 존재의 요구에 대한 반응이다. 존경(Respect):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독특한 개성을 아는 능력이다. 존경은 다른 사람이 그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라는 관심이다. 지식(Knowledge): 지식은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을 그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K군의 사랑에는 능동적인 사랑의 ‘보살핌’, ‘책임’, ‘존경’, ‘지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멜리가 ‘그가 싫다는 말을 할 때, 그녀의 말을 ‘존중’하여 그녀의 화가 풀릴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면, 그녀가 약점을 보여줄때 보듬어 주었다면, 나는 다른 남자들처럼 너를 아프게 하지 않겠다는 ‘책임’을 보였다면, 그의 사랑은 오랫동안 지속하는 ‘Being in Love’가 되었을 것이다.

*이 글은 에릭 프롬의 ‘The Art of Loving’을 참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최고의 언론지 TIMES 선정 2014년 베스트 발명품

연예인만 셀카?

아니아니- 나도 셀카 찍고 싶어요!
혼자서 얼짱각도- 찰칵! 연인끼리 놀러가서- 찰칵!
친구들끼리 놀러가서- 찰칵!



- 2015년 최신 셀카봉!
- 리모컨이 본체에 달려있는 버튼 일체형
- 싼 셀카봉 믿지 마세요!

최고급
스마트폰 글래스 스크린 프로텍터 Japanese Glass

특수 가공 유리 0.4mm의 두께로 쉽고 간편하게 부착, 일반 필름보다 3배 강한 강도로 바닥에 떨어뜨려도 액정화면을 보호해 드립니다.

대리점 문의: 213.545.4334

최한가격
\$29.99

구입 문의: **617-955-9112**

연말연시 최고의 선물용품
방송으로 소문 난 그 제품!
▶무한도전 ▶나혼자 산다 ▶꽃보다 청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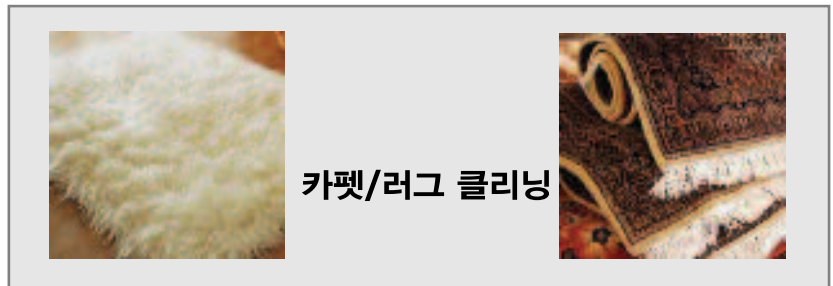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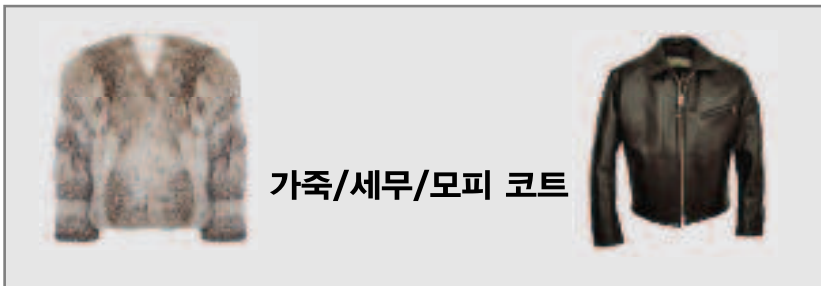
International Leather Care Corp.

미동부 최대 규모의 가죽/카펫 전문 클리너 SINCE 1999

저희 I.L.C.C가 메사추세츠, 뉴햄프셔에 계신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단시간내에 많은 고객님들에게 서비스를 해드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어려운 경기지만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발전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 드립니다.
 저희 I.L.C.C 는 15,000sq.ft. 규모와 그동안 세탁 경험을 토대로 다른 세탁업체로부터 만족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오래 동안 연구하여, 이제 새롭게 정의된 기술과 장비로 이 업계에 선두에 있음을 확신하며, 여러분들의 성원을 기다립니다.
 귀 업소의 가죽, 부츠, 카펫,세무,모피 코트, 카펫, 외딩가운 등의 모든 세탁과 Cold Storage를 믿고 맡기십시오. **좋은 Quality 와 신속한 Delivery 그리고 합당한 가격**으로 끝까지 고객 여러분들의 선택에 보답해 드릴 것입니다.
한번 맡겨 보십시오! 결정의 그 순간...
 가장 확실한 선택이 될것입니다. 귀하의 비즈니스 동반자 의식으로, 최선을 다해 보다 좋은 서비스로, 성실히 도와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 JACKET \$20
- PANTS \$18
- COAT \$27
- UGG BOOTS(Reg) \$16 / (Large) \$18
- RUG(Reg) \$1/ sq.ft.

모든 종류 옷 수선 가능



International Leather Care Corp.

393 S. Franklin St. Hempstead, NY 11550
 Tel: 516-292-5810, Fax: 516-292-5812
 E-mail: ilcccleaners@gmail.com

www.ilccny.com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세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68) 새해 주식시장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식시장은 6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상승기에 있는 주식시장이 2015년 새해 들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9일 기록에서 약 5.0%나 하락했습니다. 1월 13일 단 하루 동안에는 주식시장이 400포인트를 오르락내리락했습니다. 이렇다가 올해는 주식시장이 폭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주식시장 움직임에 투자자 마음은 대개 비슷합니다. 떨어지는 시장에서 투자를 더 하느냐? 아니면 이미 투자한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시장에서 나오느냐? 라는 상반된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주식시장을 예측하기 어렵기에 전문가들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CNBC 방송도 열심히 시청합니다. 재정 신문이나 잡지도 열심히

히 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래를, 특히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식시장을 예측하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행위와 같습니다.

작년 초에도 주식시장은 제 삼국의 경제문제(Emerging Market)와 중국의 제조산업 둔화, 등의 이유로 2월 초까지 무려 6%나 하락했습니다. 이런 시점에 주식시장에서 나왔다면 작년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2월 초 이후에도 주식시장이 잠잠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식시장 5% 하락을 4번이나 경험했지만 12월 말 S&P 500은 수익률 13%를 기록했습니다.

2015년도에도 연말에는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점은 주식시장을 예측하면서 하는 투자는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 8번이나 주식시장이 폭발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폭발한 평균은 무려 39%였습니다. 하락한 시장의 기간은 평균 19달이 지속하였습니다.

성공하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하는 투자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자산분배를 먼저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야 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형성할 때 주식과 채권을 이용합니다. 주식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오르고 내림의 폭(Volatility)이 큼니다. 채권은 정해진 이자를 받으므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움직이는 폭이 주식과 비교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주식보유가 적어지고 채권 보유가 많아질수록 포트폴리오의 위험성도 적어집니다. 이에 따라 수익률 역시 적어지지만, 투자 위험성이 적어지는 비율만큼 똑같이 적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학

설이 모던 포트폴리오 이론(Modern Portfolio Theory)입니다. 이 논문으로 마코위츠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자산분배 다음에는 분산투자를 해야 합니다. 주식에는 큰 회사, 중간 회사, 작은 회사, 외국 회사, 등으로 구분됩니다. 채권 투자 역시 정부 채권과 회사 채권으로 구분되며 또한 여러 가지 다른 만기일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 투자로 구분됩니다.

여러 가지 종목에 투자한다는 것은 투자의 기본입니다. 미래에 어떠한 종목에서 수익이 발생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톱 수익률 종목이 내년에 최악의 종목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최악의 종목이 후에 효자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것은 포트폴리오의 재조정(rebalance)을 말합니다. 기본적인 예로 주식에 50%

그리고 채권에 50%가 투자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러한 비율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주식이 55%로 증가하고 채권이 45%로 감소하면 주식 5%를 팔아서 채권을 5% 사들여 원래 형성했던 주식 50%와 채권 50%로 다시 재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마음의 감정(emotion) 없이 결정됩니다. 재조정은 모든 투자자가 원하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이성적인 결정입니다.

분명한 투자의 목적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면 주식시장을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나이, 가지고 있는 자산, 투자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식시장의 오르고 내림에 상관없이 편안한 잠과 함께 성공하는 투자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명원

공인회계사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1) - 한국과 미국 중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신고 등의 영향으로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의 미국세법에 대한 관심도가 부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주부터는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미국 세금신고 방법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합니다.

먼저 이번주는 한국과 미국 중 어느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및 미국세법 뿐만 아니라 한미조세조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국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한국에 신고해야

한국의 세법은 국적에 불문하고 개인을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한국의 거주자에게는 전세계 모든소득에 대해, 비거주자에게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적에 관계없이 ①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②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데, 이때 주소는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한국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인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돼 한국 소득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득도 한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세법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어디에 살든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미국 세법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나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는 어느나라에 살든 모든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란 외국인(alien) 중 ①영주권자(green card test)와 ②183일 이상 미국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substantial presence test)을 말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세법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자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의 소득뿐만 아니라 한국의 소득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중거주자(dual-resident)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한국의 세법에 따르면 한국의 거주자이고 미국의 세법에 따르면 미국의 거주자인 이중거주자(dual-resident)가 됩니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dual-resident)가 되면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다음의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tie-breaker rule).

- 1) 항구적 주거 (Permanent home - where an individual dwells with his family)
-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er of vital interest - closest economic and personal relationship)
- 3) 일상적 거소 (Habitual abode)
- 4) 국적 (Citizenship)
- 5) 상호합의 (Mutual agreement)

미국 시민권자와 Saving clause

한미조세조약 제4조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자국의 시민(citizen)이나 거주자(조세조약상의 거주자)에게는 한미조세조약에 불구하고 자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saving clause). 이는 다시 말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의 시민권자는 비록 한미조세조약에서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되더라도 미국의 세법에 따라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그러나 미국 영주권자 중 조세조약에 의해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된 사람은 이 규정 대상이 될 수 없음).

결론
미국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미국 영주권

자는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그들이 어디에 살든 전세계 모든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한국세법과 미국세법 그리고 한미조세조약을 종합해 보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간에는 세금신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조세조약에 의해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되면 한국의 세법에 따라 전세계 모든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도 미국의 세법에 따라 전세계 모든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savings clause). 즉, 미국의 시민권자는 어느 나라에 살든 항상 Form 1040에 의해 전세계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미국 영주권자는 조세조약에 의해 한국의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국의 세법에 따라 한국에 전세계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조세조약을 적용해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세금신고할 수 있습니다(tax treaty benefit). 그러나 이렇게 영주권자가 조세조약을 적용해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임을 주장할 경우 영주권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혹시 영주권이 취소될 경우 국적포기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앤티비(*enjoy & 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한국 방송 3사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TV는 사랑을 싣고

발렌타인데이 특별 할인!

무제한 시청 월 **\$ 29.99**
2월 28일까지(2년 약정시)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공중파, 케이블, 최신 영화, 뮤직비디오 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 콘텐츠를 모두 즐기는 The Best On-Demand, TBO
집에서 TV처럼 편하게 IPTV TBO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TBO 내 손 안의 미디어, TBO Touch (출시예정)까지 다양하게 즐기세요.

The Best Ondemand, *TBO*

정준기 원장 교육 컬럼

교육에 인내와 믿음이 중요한 요소인가?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지난 일요일 미국 전역의 TV 시청률이 약 50%나 되는 큰 스포츠 행사가 있었다. 이 이벤트를 통해 승자와 패자가 나누는 상황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어떠한 요소들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도 13년이란 기본 교육과정을 마치고 대학의 문을 노크하게 되듯이 슈퍼볼 챔피언이 되기 위해선 선수들과 코치진들이 무수한 전략을 익히고 연습을 통해 얼마나 열심히 흐트러지지 않고 자신을 관리하고 기술을 연마했는지가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피나는 노력, 연습, 그리고 관리가 주전선수가 될지 아니면 후보 선수가 될지를 결정하게 된다.

슈퍼볼 게임에 참가한 선수들은 선택 받은 선수들이다. 실제로 많은 유명한 선수들도 평생 한 번도 슈퍼볼 게임에 나간 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통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 수 있다. 단체 경기는 팀과 코치가 중요하듯이 교육 역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좋은 환경, 우수한 교사진, 그리고 뛰어난 학생이 많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보다 큰 보람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선수들이 돈보다는 승리 가능성이 높은 팀에 소속되어 자신의 실력을 연마하여 우승하는 것과 자신의 가치를 많이 인정해주는, 즉 몸값을 많이 주는 팀만 찾아가는 것은 분명 성취도 부분에서 추후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기본적인 지식이지 남보다 뛰어난 지식을 미리 습득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다. 하버드 입학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분석해보면 하버드는 학생 스스로가 도전적인 과목을 주어진 여건에서 수강하는 것을 선호하지 선행 학습을 통해 과목을 앞서가거나 단지 AP 시험을 통해 점수만 얻는 것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또한 너무 무리하게 도전적인 과목의 수강을 보여주기 위해 심리학, 경제학 등의 과목을 다른 역사 과목을 대신하여 듣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대부분 대학들이 모든 학생들이 심리학과 사회과학 과목들을 교양 과목으로 대학에서 수강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에서 AP 수강은 대학에서 수강하는 동일 과목과 비교할 때 질적인 수준에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본 과목에 충실하면서 학교가 제공한 그 기본 과목들(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의 최고의 위치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츠 코치 빌 벨리치(Bill Belichick)은 항상 모든 선수들에게 기본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동시에 단 1초라도 연습 시간에 늦게 오는 선수는 아무리 유명한 선수라도 집으로 곧바로 돌려보내고 연습을 게을리하는 선수는 아무리 팀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경기에 내보내지 않

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한 기본을 강조하는 리더십이 최고의 풋볼팀을 만들었고 4번의 슈퍼볼 챔피언이 될 수가 있었다. 선수들에게 확실한 자신의 철학을 교육시키고 기본기를 강화하면서 팀워크를 강조한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결과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한국 교육을 보면 결과를 많이 강조한다. 이는 기본기가 약해 결국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힘들어 하거나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이든지 단시간과 기간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에만 몰두하다보니 편법을 생각하고 높은 점수만을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좋은 예로 SAT 시험지 유출, 가짜 인턴십, 에세이 대필, 스펙조작 등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상태로 SAT 부정행위 하면 한국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빌 벨리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선수들의 몸놀림과 컨디션을 체크했다고 한다. 잘하기 때문에 기용하기보다는 가장 성실한 선수에게서 믿음을 얻고 신뢰를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큰 경기에도 초보 선수들을 과감히 기용할 수 있었고, 26초의 기적을 이룬 슈퍼볼에서도 보여주었다. 코치의 선수에 대한 믿음이 큰 보답으로 이어진 경기였다. 또한 세 번의 작전 시간을 활용하여 만약을 대비하여 충분히 공격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결과에 승복하면서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잘하는 학생들과 비교하여 특정과목을 선행학습하여 다음 단계로 뛰어 넘으려고 준비한다. 이는 기본기가 흔들려 결국 학년이 올라가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며 아카데미 균형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점들을 야기 시킨다. 슈퍼볼 우승은 철저한 기본기, 감독의 선수에 대한 믿음과 인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패트리엇츠 쿼터백 톰 브래디가 우승 소감 기자 회견 때(26초 남은 상황에 대한) 한 말을 생각해 보자. “우리 팀은 결코 게임이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다.(Our team never gives up the game until the game is over.)” 마지막 쿼터 시작까지 10점을 지고 있던 상태에서 14점을 뽑아 승리를 한 것도 놀랍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결과가 우승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두 달 후면 입학 결과가 나올 것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대학에 보여야 하며 주니어들은 성적이 좋지 않다고 포기하기 보다는 마지막 2학기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최상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백영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재용자, 사전에 따져봐야 할 사항 많다 (1)

모기지 금리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지난해 말 30년 만기 고정금리가 소폭 상승했지만 4%를 넘지 않았다. 올해부터 모기지 이자율이 본격적인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상승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다. 지난해 모기지 금리가 예상과 달리 하락세를 보이자 ‘재용자 미니 붐’이 일었던 적이 있다. 올해도 본격적인 모기지 금리상승을 앞두고 지난해 재용자를 실시하지 못했던 주택 소유주들의 재용자 신청 러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용자를 신청하는 가장 큰 목적은 낮은 이자율로 갈아타 이자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재용자 신청 때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비용이 절약되는 것만은 아니다. 재용자 실시를 통한 혜택을 높이려면 사전에 따져봐야 할 사항이 많다. 올해 초 재용자 계획이 있다면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재용자에 따른 혜택이 실제로 있을 지부터 알아봐야겠다.

■ 재용자 손익 분기점 언제인가?

재용자를 실시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다. 기존의 이자비용을 조금이라도 낮춰서 가계부 부담을 줄여보려는 것이 재용자의 주된 목적이다. 비용이 낮아지지 않는다면 재용자를 실시할 필요는 당연히 없다. 최근 이자율이 낮아 높은 이자율을 적용 받고 있다면 재용자를 통해 이자비용을 얼마든지 낮춰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용자를 하게 되면 일반 모기지 대출과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발생한다.

낮은 이자율로 전환해 이자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반대로 당장 수천달러에 달하는 재용자 수수료 비용을 내야 한다. 따라서 미리 일시불로 납부한 재용자 수수료 비용과 매달 조금씩 절약되는 이자 비용이 일치하는 ‘손익 분기점’ 시기를 예측해야 한다.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기 전에 재용자한 집을 처분하면 재용자 수수료 비용이 만회되지 않아 재용자로 인한 비용 절약 혜택은 없다. 적어도 손익 분기점을 넘겨야 재용자 실시에 따른 혜택을 다만 얼마라도 건질 수 있다.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재용자 혜택도 커진다.

일반적으로 재용자를 한 후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약 2~3년 정도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재용자 손익 분기점을 정확히 예측해 주는 온라인 계산기를 이용하면 손익 분기점을 쉽게 알 수 있다.

모기지 시장 조사업체 HSH 닷컴의 계산기 ‘<http://www.hsh.com/refinance-calculator/>’에서 기존 및 재용자 후 모기지 정보를 간단히 입력하면 손익 분기점까지 걸리는 개월 수를 확인할 수 있다.

■ 재용자 후 만기는?

기존의 높은 이자율을 낮은 이자율로 전환하면 매달 납부하는 페이먼트 금액이 낮아지

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기지 대출 만기까지 남아 있는 기간을 고려해서 재용자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만기까지의 전체 이자 비용 절감액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매달 납부하는 페이먼트 금액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점에 현혹되면 안 되고 재용자 실시 후 새로 발생하는 전체 이자비용까지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 모기지 대출을 받은 기간이 1~2년 사이로 얼마 되지 않은 경우 재용자를 통해 다시 30년 만기 대출을 받아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기존 모기지를 갚아나간 지 이미 10년 이상된 경우 다시 30년짜리 모기지 대출을 받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이자 비용만 물어야 하는 셈이다. 기존 모기지의 만기가 비교적 짧다면 재용자를 통해 장기 대출을 받는 것보다 15년 내지 10년 등 단기로 갈아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 어느 은행을 통해 재용자를 해야 하나?

모기지 대출을 받은 기존 은행을 통해서만 재용자를 받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경쟁은행 등 여러 대출기관을 통한 재용자 옵션을 비교해 재용자를 실시하면 혜택이 더욱 커진다.

기존 은행을 통한 재용자의 경우 대출 고객에 대한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 재용자 절차 등이 간소하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이자율

등은 타 은행보다 덜 유리하다.

이미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는 고객에게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면 그만큼 은행 측 수익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기존 은행과 재용자에 대해 문의하기 전 여러 은행을 통해 제시되는 시중 이자율과 수수료 비용 등을 비교해 기존 은행에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음 호에 계속)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www.pospay24.com



POS 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음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노퍽 새 기계, 새 셔츠유닛, 부유한 동네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150,000, 소유자 32년만에 은퇴

스프링필드 지역, 부동산,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60,000
21E Test 완료, 은행융자 가능

보스톤 남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10,000 매매가격 \$39,000

동양 그로서리, 연매상 \$415,000 다운타운 보스톤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소유자 은퇴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100,000

보스톤 남쪽 아이스크림, 연매상 \$400,000 프랜차이즈

보스톤 고급 몰 커스텀주얼리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 가격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 급매매, 연매상 \$120,000 매매가격 \$6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다운타운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금액 협상가능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00,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82,000 매매가격 \$35,000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70,000 소유자 은퇴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연매상 \$65,000 좋은 매매가격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메인주 포틀랜드지역 컨비니언스, 연매상 \$600,000 E-2 비자 가능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60,000 매매가격 \$235,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가격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훌세일: \$100,000 오너 파이낸스(50%)



보스톤 교육원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아카데믹 프로그램

SAT 1, 2/AP 수업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단기 고득점 완성
실전 문제 중심 수업
상시 참여및 주말수업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학업 과목 개인과외 가능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들
개인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2월Winter Break Program

기간: 2.14(토)~22(일)(9일간)
3.14일 SAT시험을 대비한 집중반

SAT I Class
-각 파트별 균형잡힌 시간배분
(CR:5일, W:2일, Math:1일)
-실전문제풀이 중심의 수업
-종일 프로그램(9:00-5:00)
-실력있는 강사진

SAT II subjects class
Math IIC, Physics, Chemistry

*5월AP,the national Spanish &Latin exam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개인지도 가능

2016 College Process

대상: 11 학년
모집기간: 2015년 2월 말까지

경시대회준비

수학 경시 준비(AMC/AIME)

외국어 경시 준비
(Latin, Spanish, French)

과학 올림피아드 준비
(생물, 물리, 화학)